

연구결과 보고서

지역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축제 개발연구

- 보령 돌문화축제 -

1998. 12 / 정 강 환



대 천 문 화 원

연구결과 보고서

지역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축제 개발연구

- 대천 돌문화축제 -

1998.12 / 정 강 환

대 천 문 화 원

提 出 文

대천 문화원장 귀하

이 조사보고서를 “지역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축제
개발연구- 보령 돌문화 축제”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98년 12월
배재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정 강 환

연구책임자 : 정강환 (배재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공동연구원 : 권병웅 (쟁이골사람들 기획실장)

연구보조원 : 민주철 (관광상품 및 이벤트개발연구소 조교)
최덕기 (배재대학교 관광학부)

■ 목 차 ■

I. 보령의 축제환경분석과 돌문화 축제 기본계획

1. 축제개발배경	1
2. 축제개발목적	2
3. 축제개발 핵심컨셉	3
4. 보령의 돌 산업 - 지리적 개념도	4
5. 축제개발 목적과 핵심컨셉	5
6. 축제개발을 위한 보령의 일반환경분석	6
7. 보령의 돌문화 관련 축제개발 환경	24
8. 축제개최시기	39
9. 축제장소 장소전략	47

II. 보령의 돌관련 소재와 이벤트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방향

1. 한내 12칸 돌다리밟기 연출개선 및 관광이벤트화 전략	55
2. 등바루놀이 개선 및 관광이벤트화 전략	65
3. 보령 돌문화축제 프로그램 개요(시안)	68
4. 이벤트 개발방향	69

III. 보령 돌문화축제 홍보전략 및 서비스 전략

1. 홍보매체 별 (부분별) 홍보전략	97
2. 서비스 전략	99

<부 록>

I. 보령의 축제환경분석과 돌문화 축제 기본계획

1. 축제개발배경

1. 지방화시대 지역마다 지역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축제의 성공사례가 적극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천도자기축제, 진도영등제, 안동탈춤축제, 금산인삼제 등과 같이 생산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역개발형 축제가 보령에 필요하다.
2. 축제개발전략으로 지역활성화에 성공한 연중 20여개 축제를 개최하는 영국의 '에덴버러' 사례처럼 소자본 투자대비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잠재성 있는 축제개발이 중요하다. 특히 봄의 꽃게축제, 여름의 머드축제, 가을의 만세보령제의 현실에서 보령이 사계절 축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겨울축제 즉, 타지역과 차별화된 축제가 부재하다.
3. 보령은 대천해수욕장의 서해안 바다 이미지 때문에 해안형 축제 (예: 보령 머드축제, 꽃게축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보령의 내륙지역 (성주면, 청라면, 웅천면, 남포면)에는 잠재성이 있음에도 내륙형 축제개발이 미비한 실정이다.
4. 보령의 주요 민속놀이로 부각되는 '한내돌다리 밟기'의 발전방안이 필요하며, 석탄폐광과 석탄박물관을 연계한 관광자원화 방안이 요구되며, 과거 석재산업이 유명했던 점을 종합포괄하는 축제아이템이 필요하다.
5. 과거 활발했던 보령지역의 석재산업이 값싼 중국돌의 수입으로 침체기를 맞는 실정에서 활성화 자극을 줄 수 있는 IMF 극복형 이벤트 개발이 요구되는 실정임.
6. 보령이 바다관련한 것은 물론 돌 (오석/청석) 등 다양한 관광소재가 풍부함에도 알려지지 않아 효과적인 홍보기회가 요구됨.
7. 보령의 관광매력물로 나타난 석탄박물관과 청소년수련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2. 축제개발목적

1. 소자본의 독특한 축제관광상품개발

소자본 투자대비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독특한 축제관광상품개발을 통한 지방화시대 보령의 이미지를 강화

2. 내륙형 문화관광축제 개발

해안형 지역축제(예: 꽃게축제, 보령머드축제 등)에 치중되어 있는 보령에 내륙형 문화관광축제 개발로 내적으로 보령지역에 고른 균형개발과 외적으로 지방화시대 보령의 차별화된 이미지 강조

3. 지역 침체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생산적인 축제 유도

중국 석재수입으로 침체기를 맞은 지역의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인 축제로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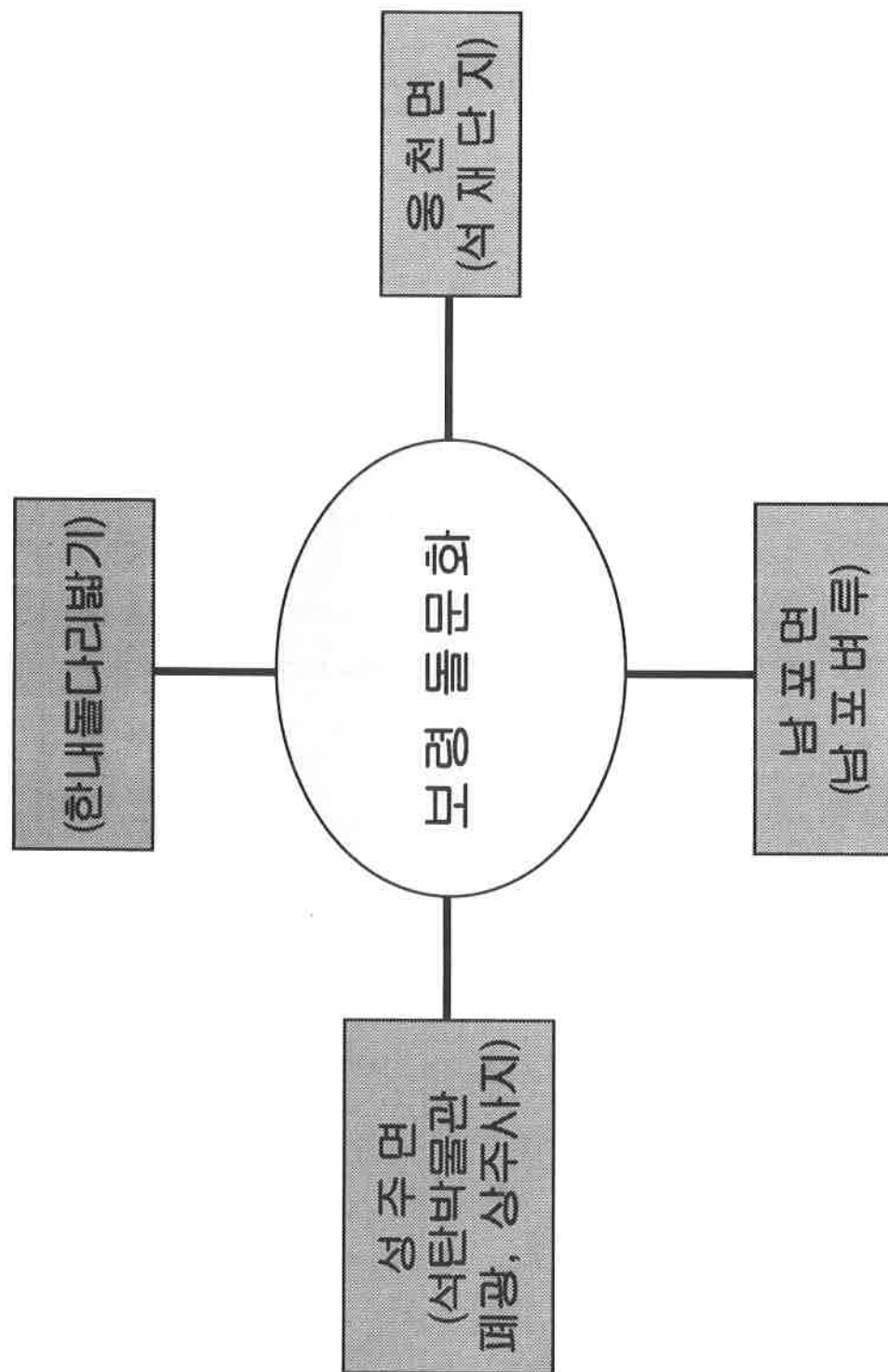
4. 축제를 통한 지역의 민속관광자원을 포괄 발전

보령의 주요 민속놀이로 부각되는 '한내들다리밟기'의 발전방안이 되며, 석탄폐광과 석탄박물관을 연계한 관광자원화가 가능하고, 과거 석재산업이 유명했던 점을 종합 포괄할 수 있는 축제아이템으로 발전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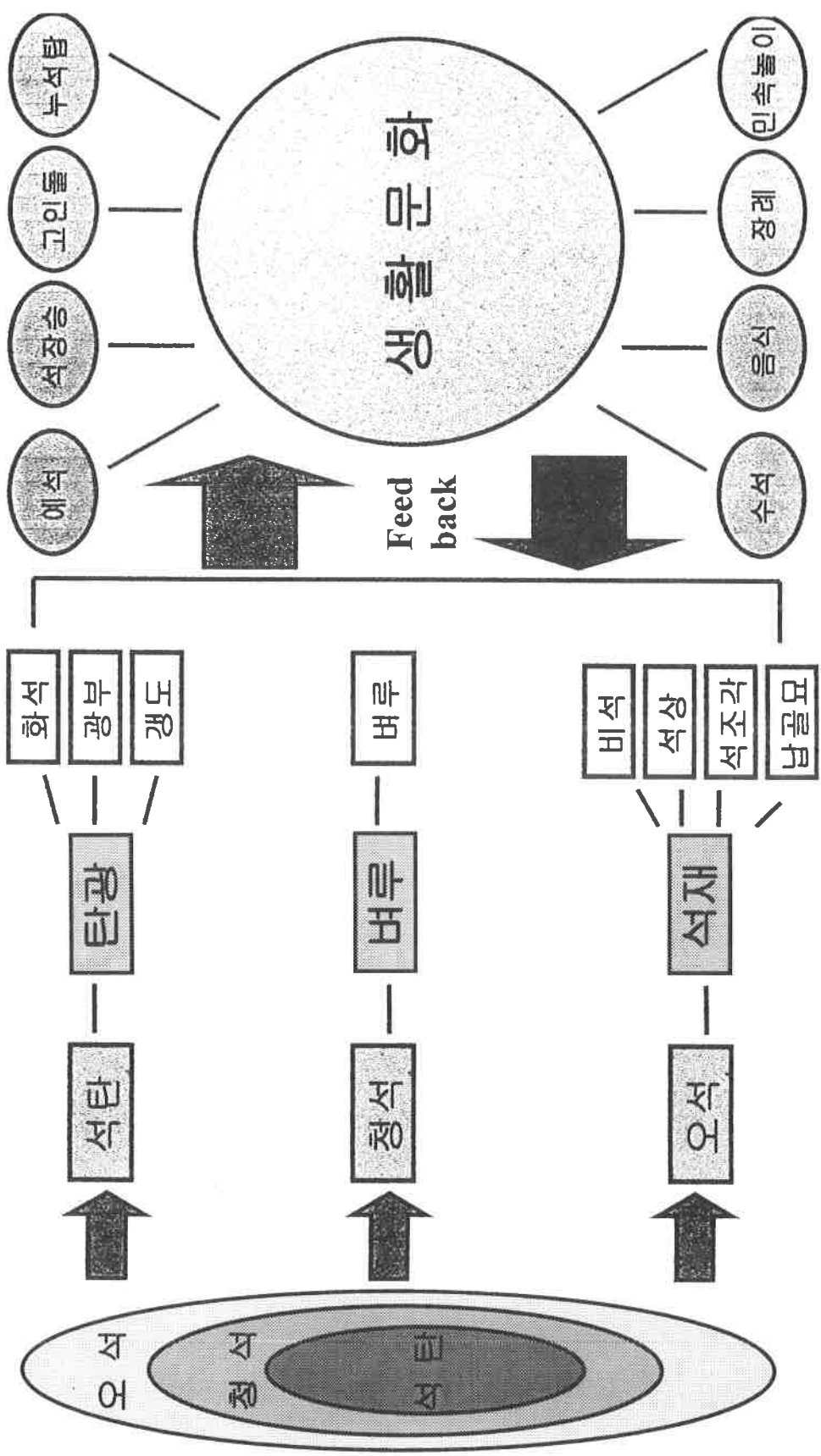
5. 석탄박물관과 청소년 수련관 활성화

석탄박물관과 청소년수련관의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가 가능.

4. 보령의 돌 산업 - 지리적 개념도



3. 축제개발핵심컨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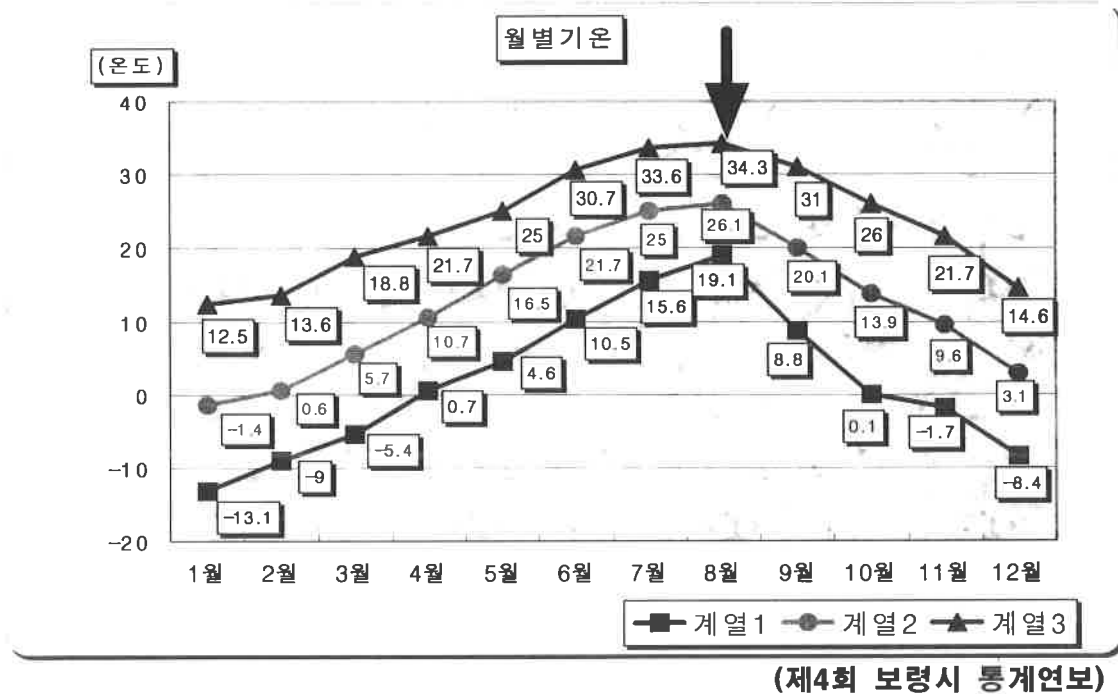
5. 축제개발 목적과 핵심컨셉

보령 돌 소재	문화	프로그램 소재	관련소재
한내돌다리밟기	민속문화	연출개선 참여프로그램	돌방주, 비석치기놀이, 등불써기. 공기놀이
고인돌	원시문화	교육프로그램 (역사적의미)	
석탄/석탄박물관	탄광문화	광부체험프로그램 · 착암기굴착체험 · 광차밀기 · 연탄찍기 운탄정도활용 (폐광활용)	
벼루	서예문화	벼루전시 및 체험 서예전	청석(연적,펜꽃이,문패)
오석(석재)	비석(장례/매장)문화 불교문화(돌공예문화)	비석전시, 절 관련 석공예품, 예석전시	화강암(일반석공예)
왕대사 마애불상 성주사 탑	불교문화	탐방불교문화 (역사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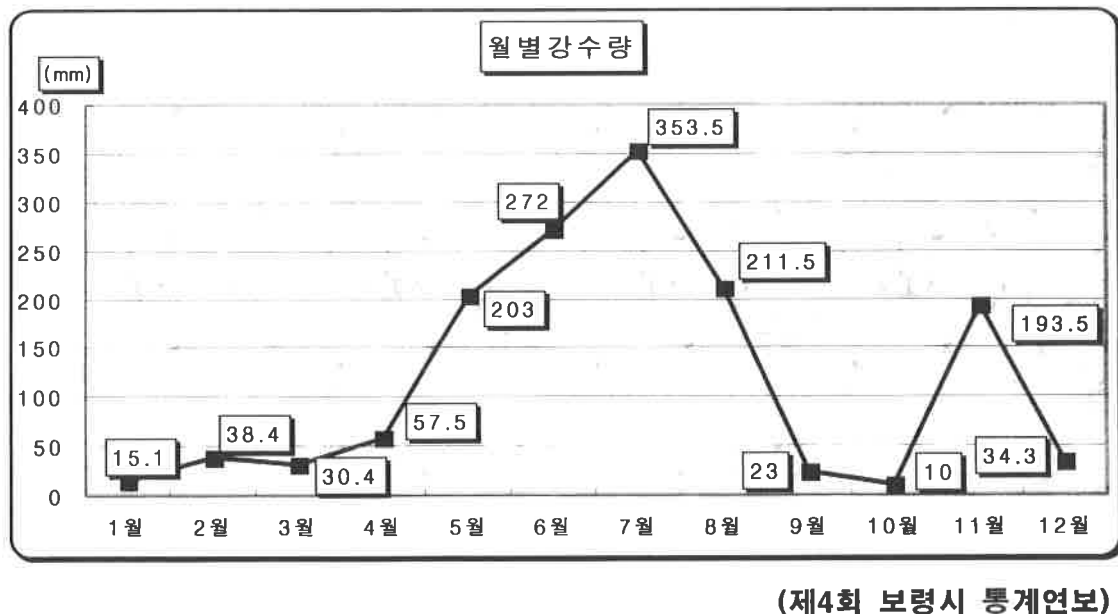
6. 축제개발을 위한 보령의 일반환경분석

가) 자연환경

보령의 월별기온은 6~9월이 가장 온난하며 그중 8월이 가장 따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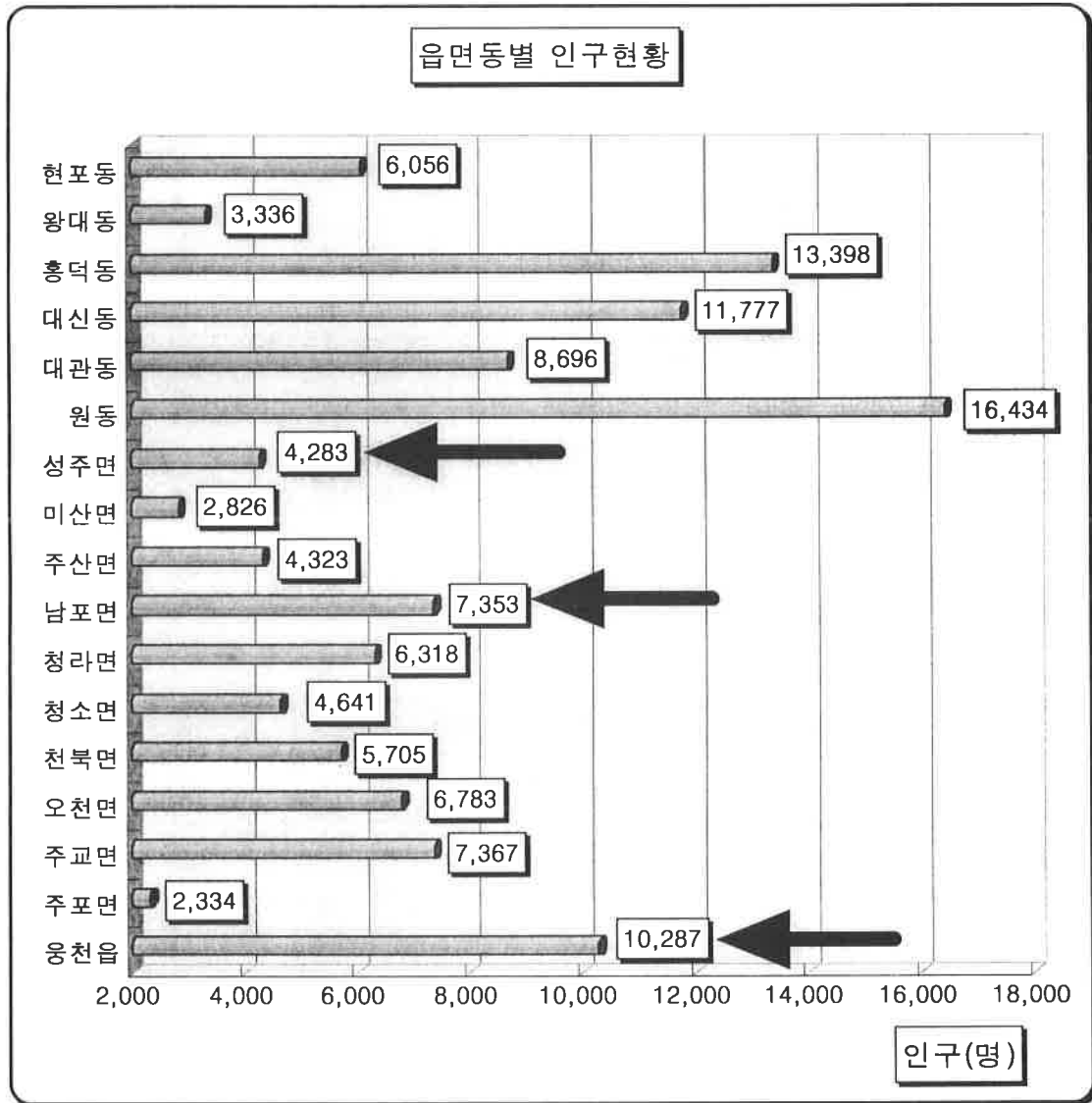


보령의 강수량은 5~8월이 가장 높으며 그중 7월(353.5mm)이 연중 강수량이 가장 높다. 이러한 강수량의 연중 주기는 2회가 있는데 그 나머지 주기는 10~12월에 있으며 그중 11월이 193.5mm이다.



나) 인문환경

1) 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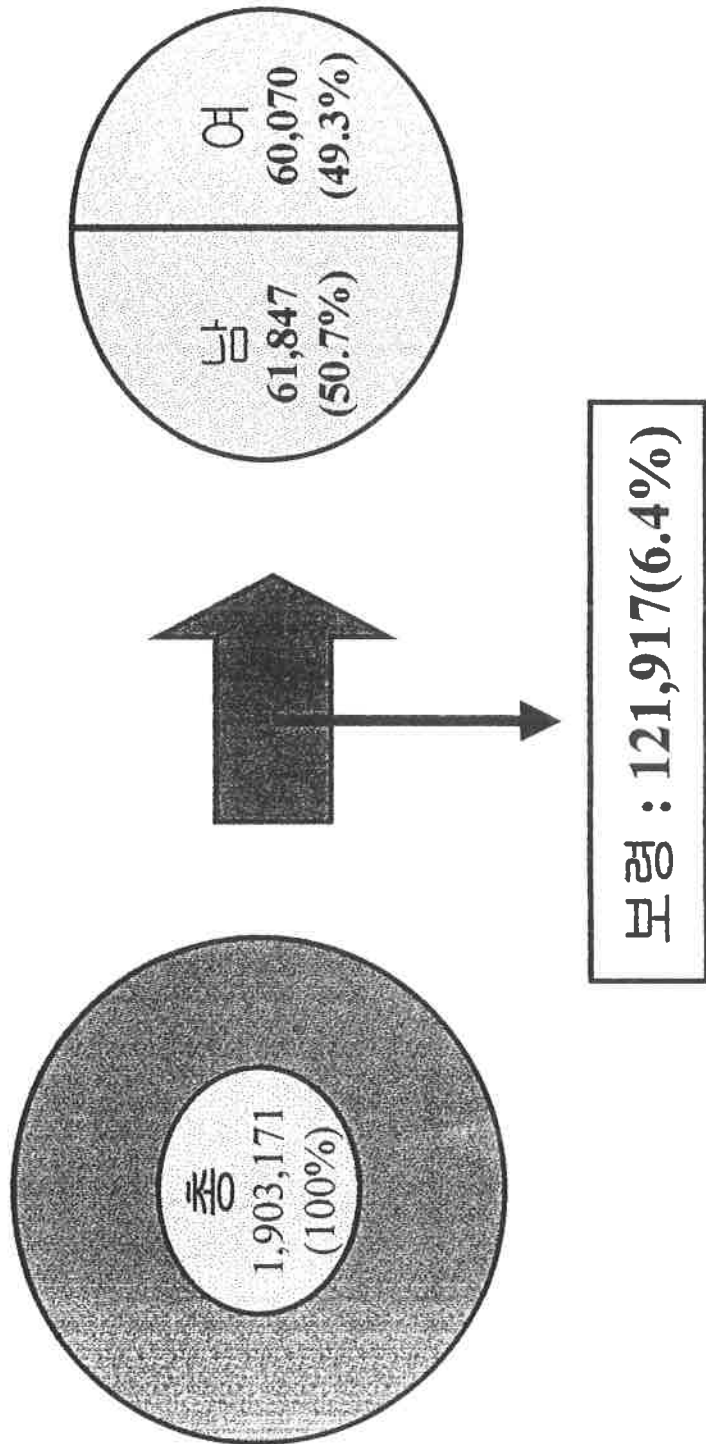
(제4회 보령시 통계연보)

보령의 인구현황은 원동이 인구 16,434명으로 가장 많다. 축제환경과 관련하여 벼루가 유명한 남포면의 인구는 7,353명이고, 성주사와 석탄박물관이 위치한 성주면은 4,283명이며 석재로 유명한 웅천면은 10,287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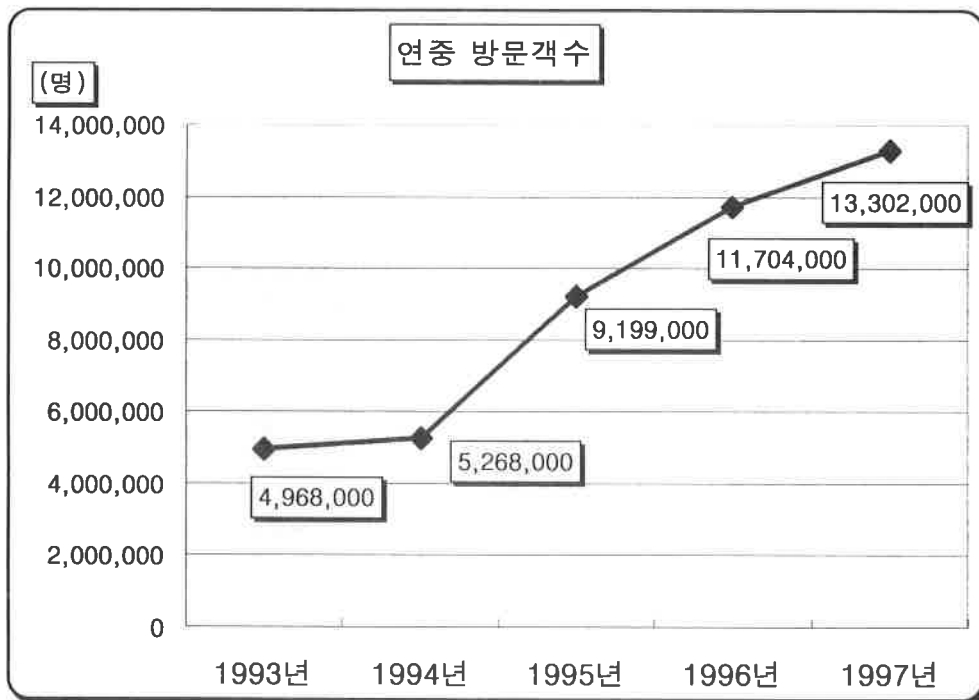
이런 보령의 인구는 전체 충남인구 1,903,171명의 6.4%인 121,917명이며, 보령의 남녀 인구비는 약 5:5로 남녀인구의 비율이 비슷하다. (표1 참조)

(표-1)

충남대비 인구현황



2) 연중 관광객수



(제4회 보령시 통계연보)

보령이 관광지로 유명하다는 측면은 위의 관광객수의 증가를 보면 알 수 있다. 보령의 연 관광객수는 1993년 이래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1997년에는 연 방문객수가 13,302,000명이었다. 1996년 대비 1997년의 인구증가율은 13.6%이다.



3) 관광자원

(1) 경찰서 망루

보령 시내 한복판에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정자도 아닌 것이 처음 보는 사람을 의아하게 만드는데 복잡하기 만한 이 거리엔 웬지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향아리 모양을 하고 있다. 현대식 건물들만이 즐비한 곳에 이상한 모양이 떡 버티고 있으며 주위를 둘러싼 담쟁이 넝쿨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멈추게 한다. 이 것이 바로 6.25전쟁 당시 보령 경찰서가 남으로 후퇴하였다가 9.28 수복후 돌아왔으나 성주산에 숨은 북한군이 잔존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지은 돌망루이다.

겉모습만 보면 전쟁의 흔적이라고 전혀 느낄 수 없는 그저 담쟁이가 아름다운 망루는 동족간의 전쟁이라는 슬픈 역사를 지닌 유적이다. 도 문화재 자료 272호.

(2) 명대골계곡

명대골계곡은 오서산의 동남쪽 기슭으로 월정계곡과 금자동계곡이 내려오면서 합류하여 장현리 명대저수지로 흘러 내리는 총 6km의 계곡으로 하늘을 가리는 잡목림과 기묘한 바위 사이로 맑은 물이 흘러 여름철 피서객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오서산 정상으로 오르는 훌륭한 등산코스를 겸할 수 있는 곳이다.

계곡 주변에는 여러개의 명소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관광명소	설 명
용허리	산의 능선이 용의 허리 모양같다고 붙인 이름이며, 전설에 의하면 이곳에 묘를 쓰면 용이 노하여 가뭄이 든다고 함.
좁방바위	문좁방처럼 생긴 바위가 길을 가로질러 있다.
대문바위	바위모양이 마치 대문을 닫아놓는 모습과 비슷함.
은폭동폭포	월정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약 20m 높이에서 폭포를 이룬다.
신랑신부바위	신랑 신부가 초례청에 서 있는 모습의 바위.
농바위	신부가 혼수로 가져가는 장농과 비슷한 바위.
굴래	바위로 이루어진 조그만 동굴로 옛날 신선 9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시를 읊던 곳이며 일명 동자굴이라고도 하며, 동굴속 바위 틈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옴. 현재도 기도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음.
뿔개샘	산 정상에 석각으로 4각형을 한 우물로서 누군가가 이 샘에 돌로 뿔개를 하였다고 해서 붙인 이름
계곡내 사찰 암자	월정사(1901년 창건한 태고종 소속의 조그마한 암자), 천축암(1950년 창건한 태고종 소속의 암자)

위와 같이 명소를 거쳐 오서산 정상에 오르는데 오서산은 보령, 청양, 홍성등 3개시.군에 접해 있는 해발 792m의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 높은 명산으로 정상은 12봉으로 되어 있으며, 멀리 서해바다는 물론 충청도의 일원과 경기도 일부와 전북 군산 등을 바라볼 수 있다. 이 계곡은 여름철에는 시원한 계곡의 옥수가 가슴 가득히 시원함을 만끽할 수 있고, 가을철 단풍은 기암괴석과 조화를 이루어 신선이 내려와 놀았다는 전설과 같이 선경을 연상케 하여 등산객의 발걸음을 더디게 하고 있는 계곡이다. 현재도 기도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3) 무창포해수욕장

조선시대의 군창지였던 곳으로 1928년 서해안에서 최초로 개장된 해수욕장이다. 백사장 길이 1.5 km, 수심 1~2m, 백사장 50m, 수온 섭씨 22도, 경사도 4도의 해수욕장으로 주변에는 송림이 울창하여 해수욕과 산림욕을 겸할 수 있다. 특히 백사장 앞 1.5km 에 2,000여평의 기암괴석이 있는 최적의 낚시터가 있는데 매월 사리때 1-2일간 바닷길이 열리는 "모세의 기적" 이라고 하는 기현상이 생긴다.

무창포해수욕장에서 무인도 석대도에 이르는 1.5km 구간에서 여름철 백중사리때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왔던 이 신비의 바닷길 현상이 사실은 매월 음력 사리때 두차례 일어나며 일반인이 마음놓고 들어가도 안전하다고 판단, 96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반인에 공개된다. 이에 따라 이곳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은 1시간 20

분 정도 계속되는 물 갈림 현상때 바닷길을 따라 들어가 해삼, 멍게, 소라, 낙지 등 해산물을 직접 잡거나 갯벌에 살고있는 바지락 등을 채취하는 색다른 경험을 가질 수 있다.

(4) 상양관광농원

상양관광농원은 충남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 봉황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농원 규모는 총 1만 4천여 평으로 지형은 둥그스름하게 튀어 오른 언덕 형태를 이루고 있다. 봉황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농원에서 보면 대천시내가 비스듬한 사각으로 내려다보인다. 그리고 멀리 서해바다가 꿈을 꾸듯 펼쳐져 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서해 낙조는 일품이다.

이 농원은 묘목사업을 발판으로 조경농원을 꾸몄다. 71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이 점차 수종이 증가하고 정원수가 늘어나면서, 봄부터 가을까지 각종 꽃이 연이어 피어나는 장관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꽃구경을 하기 위해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 이처럼 겨울을 빼고는 봄, 여름, 가을 동안 두루 꽃구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 농원의 야외 예식장은 폭포와 분수대가 어우러져 인기가 높다. 또한 경관이 빼어나 신혼부부들이 사진 찍기에도 아주 좋다. 인근에 대천 해수욕장이 있어 농원에서 해수욕장까지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5) 성주산 삼림욕장

성주사지 동쪽으로 2km에 위치한 기암절벽에 피어나는 단풍은 자연의 신비함을 느끼게 하고 계곡을 타고 흐르는 옥수는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하여주는 심연동이 있으며 4km에 달하는 계곡 중간지점에 주막집이 있어 동동주 한잔으로 여독을 풀며 자연을 즐길 수 있고 또한 선경을 연상케 하기도 한다.

(6) 죽도관광지

죽도는 원래 남포면 월전리 앞바다에 두둥실 떠있던 섬이다. 남포간척지 공사로 인해 방조제가 서면서 육지로 연육되어 섬 아닌 섬이 되었다. 섬 전체에 울창한 대나무가 가득하여 대섬이라고 하였고, 바다를 생계로 살아가는 한적한 어촌이었다. 남포방조제가 생긴 이후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의 중간 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섬 서쪽의 기암절벽의 비경과 섬 전체의 울창한 수림으로 관광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곳에는 휴양콘도미니엄과 돔하우스형 가족호텔 등 숙박 시설이 들어서고, 해수욕장, 요트 적치장과 요트클럽하우스, 전망휴게소, 피크닉장, 식당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전망이다. 죽도 앞바다는 물이 깨끗하고 바닷속 여가 잘 발달되어 있어 천혜의 어장으로 이름높으며 바다 낚시꾼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3.7km의 남포방조제는 보령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3차선의 방조제 도로는 바다와 들을 끼고 달리는 드라이브코스로 손색이 없을 만큼 잘 단장되어 있으며, 연인들에겐 훌륭한 산책로 구실을 한다. 방조제 중간에는 팔각정을 세워 휴식 공간을 마련하였다. 방조제에 올라서면 시원한 바다가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 돌아보면 성주산, 옥마산 아래로 드넓은 남포 평야가 한눈에 들어온다. 대천해수욕장 방면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있고, 무창포로 향하는 월전리에도 숨씨 좋은 음식점들이 미식가를 기다리고 있다. 가까운 곳에 최치원 유적지와 용두해수욕장이 있어 손쉽게 찾을 수 있다.

(7) 화장곶계곡

성주산 일대에 모란형 명당이 8개소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곳 화장곶에 감추어져 있다하여 화장곶이다. 최근 산림이 내품는 향기 '피톤치드'를 마시고 피부에 접촉시키고, 맑은 공기, 상쾌한 푸르름, 신비한 화음,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져 심신의 안정과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산림욕장'이 조성되어 이곳을 찾는 이를 흥분시키고 있다. 4km에 이르는 우거진 숲,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을 접한다면 선경을 연상케하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계곡이다.

(8) 화현관광농원

화현관광농원은 대천 쪽에 가까운 '굿고개'라는 고개 마루턱에 자리잡고 있고 시보호수로 지정된 4-5백년 된 큰 느티나무가 서있어 농원을 찾기가 아주 쉽다. 화현농원은 주변 연계 농지를 이용한 주말농장으로 연계 농가가 5 가구 있으며, 딸기밭, 묘목밭, 밤나무단지, 배밭 등에서 무공해 과수를 생산해 직판장에 내다 판다.

인근에 대천해수욕장이 있는데 불과 15분 거리밖에 안 된다. 그래서 굳이 해수욕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농원의 편안한 숙소를 이용하면서 낮에 대천해수욕장에 가서 더위를 식힐 수 있다.

4) 문화재 현황

구분	계	유 형 문 화 재				기념물		무형 문화재
		국보	보물	구조물	석조물	사적	기념물	
계	37	1	3	15	8	5	4	1
국가지정	7	1	3	·	·	2	1	·
도지정	11	·	·	3	4	·	3	1
문화재자료	17	·	·	10	4	3	·	·
향토유적	2	·	·	2	·	·	·	·

5) 문화재 상세정보

국보	낭혜화상 백월보광탑비(국보 8호, 성주사지 소재)
보물	성주사지 5층석탑(보물 19호) 성주사지 중앙 3층석탑(보물 20호) 성주사지 서3층석탑(보물 47호)
시도무형문화재	보령남포벼루제작(保寧藍浦벼루제작) 6호 (충남)
시도유형문화재	성주사지동삼층석탑 (聖住寺址東三層石塔) 26호 (충남) 보령수부리귀부밋이수 (保寧水芙里龜趺밋이首) 32호 (충남) 성주사지석등 (聖住寺址石燈) 33호 (충남) 보령관아문 (保寧官衙門) 40호 (충남) 남포관아문<진서루.내삼문.외동헌> (藍浦官衙門<鎮西樓. 內三門.外東軒>) 65호 (충남) 오천현관아 (鰲川縣官衙) 136호 (충남) 대천한내들다리 (大川한내들다리) 139호 (충남)

중요민속자료	원홍주등육군상무사단제비 (元洪州等六郡商務社檀祭碑) 30호 선고인합동위령비 (先故人合同慰靈碑) 30호 (충남) 반수정건모한식제답기증기념비 (班首鄭建謨寒食祭沓寄贈紀念碑) 30호 (충남)
문화재자료	보령향교대성전 (保寧鄕校大成殿) 135호 (충남) 남포향교대성전 (藍浦鄕校大成殿) 136호 (충남) 오천향교대성전 (鰲川鄕校大成殿) 137호 (충남) 화암서원 (華岩書院) 138호 (충남) 보령리오층석탑 (保寧里五層石塔) 139호 (충남) 성주사지석계단 (聖住寺址石階段) 140호 (충남) 용암영당 (龍岩影堂) 141호 (충남) 수현사 (水鉉祠) 142호 (충남) 광성부원군사우 (光城府院君祠宇) 143호 (충남) 최고운유적 (崔孤雲遺蹟) 145호 (충남) 보령성곽 (保寧城郭) 146호 (충남) 보령경찰서망루 (保寧警察署望樓) 272호 (충남) 이현구가옥 (李顯九家屋) 288호 (충남) 신경섭가옥 (申慶燮家屋) 291호 (충남) 편무성가옥 (片戊成家屋) 304호 (충남) 대천왕대사마애불 (大川王臺寺磨崖佛) 317호 (충남) 이지함선생묘 (李之函先生墓) 320호 (충남)
천연기념물	외연도의상록수림 (外煙島의常綠樹林) 136호 (충남)
시도기념물	김좌진장군묘 (金佐鎭將軍墓) 73호 (충남) 보령오천성 (保寧鰲川城) 9호 (충남) 남포읍성 (南浦邑城) 10호 (충남)
사적	성주사지 (聖住寺址) 307호 (충남) 죽도앞바다고려청자매장해역 (竹島앞바다高麗靑磁埋藏海域) 321호 (충남)

6) 보령시 연혁

백제때 신촌현이었는데, 통일신라시대에는 신읍현(남포는 이때부터 남포)이라 하다가 고려 초 보령현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보령현, 남포현외에 오천에 충청 수군절도사 영을 두었으며, 1895년 고종 32년에 보령군, 남포군이 되었고 1901년 오천군이 되었다가 1914년 3월 보령, 남포, 오천을 통합 보령군으로 개편하였으며 1963년 군청소재지인 대천면을 대천읍으로 승격, 1986년 대천읍에서 대천시로 승격되어 보령군과 분리되었다가 1995. 1. 1. 다시 보령시로 통합되었다.

다) 보령의 기존지역 축제현황

1) 만세보령문화제

(1) 만세보령의 유래

보령이란 지명은 고려태조의 후백제 합병전에도 별다른 전흔없이 편안함을 보전했다는 점에서 일컫게 된 것으로 구전되고 있으며, 『萬世保寧』이란 대명사로 불리우게 된 것은 풍수지리설에 보령지역에는 오서산과 성주산간에 『萬世榮華之地』라는 명당터가 많다는 설과 『南格庵山水十勝保吉之地設』 등 十數人의 비기에 떠오른 전국 十勝地중에 보령땅이 우선 포함되어 있고 조선 숙종때 『擇里地』 저작자인 이 중환 선생이 보령땅을 택리지에다 다른 해변지역에 비해 ‘오직 보령땅은 산천이 가장 훌륭하고 호수와 산의 경치가 아름답고 탁트여서 명승지라 부른다’라고 했다. 이와 같은 점들로 보령지역이 전국적인 萬世榮華之地로 알려지고 『萬世保寧』이라 부르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 만세보령문화제의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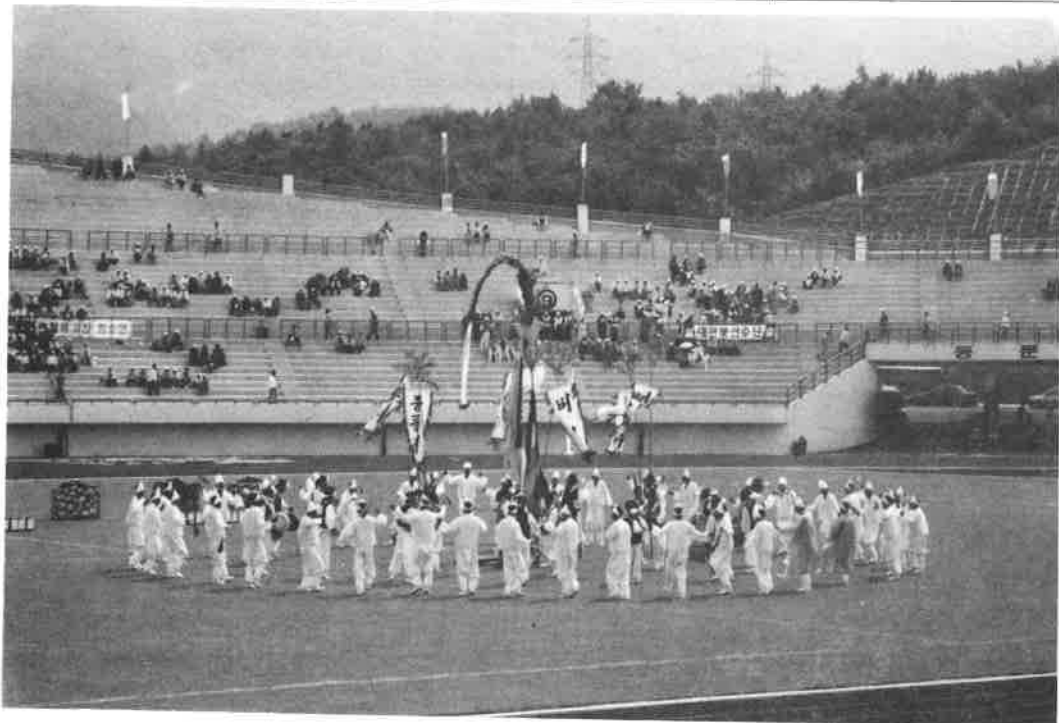
보령지역은 산·들·바다가 조화를 이루어 농촌, 어촌, 산간지역이 잘 형성되어 있고 물산이 풍부하며 인심이 넉넉하고 순후하여 예로부터 살기좋은 복된 삶의 터전으로 충효·열사·열녀를 비롯하여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고, 미풍양속과 훌륭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며 지역축제의 기원이 되는 생업과 건강,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 당제, 용왕제, 풍어당제, 성황제, 풍어제와 등불싸기, 등바루 놀이, 답교놀이 등 다양한 고유전통민속이 현재까지도 많은 지역에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민속이 승화된 지역축제는 산업사회에서 일의 생산성을 높이고 현대인에게는 정신적 여유를 갖게하여 생활에 활력을 주고 지역주민과 공동체에게는 자긍심과 일체감, 애郷심을 높여 화합을 도모케 하며 현대에 와서는 문화관광축제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만세보령문화제는 이러한 취지에서 전문기관의 용역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1988년도에 보령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을 종합하여 시민축제로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

문화제의 명칭은 훌륭한 뜻이 함축된 지명유래를 활용하였으며 개최시기는 여러 종목을 종합한 관계로 10월 1일 시민의 날을 기준으로 시행하되 풍어제만은 전통적 관행시기인 음력 1월 15일에 시행하고 있다.

(3) 만세보령문화제 행사종목 : 97년 행사종목

일 시	행 사 종 목	장 소
1997. 9. 29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막봉화제 ○ 산제 ○ 허수아비에술제 ○ 전국시조경창대회 ○ 풍년제 ○ 보령문화발전세미나 	옥 마 봉 화 장 골 (성주) 보 리 섬 (남포) 종합사회복지관 보 리 섬 (남포) 대 천 문 화 원
1997. 9. 30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미부인경모제 ○ 제6회전국사진공모전 ○ 향토작가전 ○ 시가지페레이드 ○ 한내12간 돌다리밟기 ○ 국악공연 ○ 경축의 밤시민 가요제 ○ 불꽃놀이 	정 절 사 (오천) 보건소 회의실 // 도 심 구 간 대천천 고수부지 // // // //
1997. 10. 1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막페레이드 및 입장 ○ 개막식 ○ 민속시연 ○ 민속·체육·친선경기 ○ 폐막식 	종 합 경 기 장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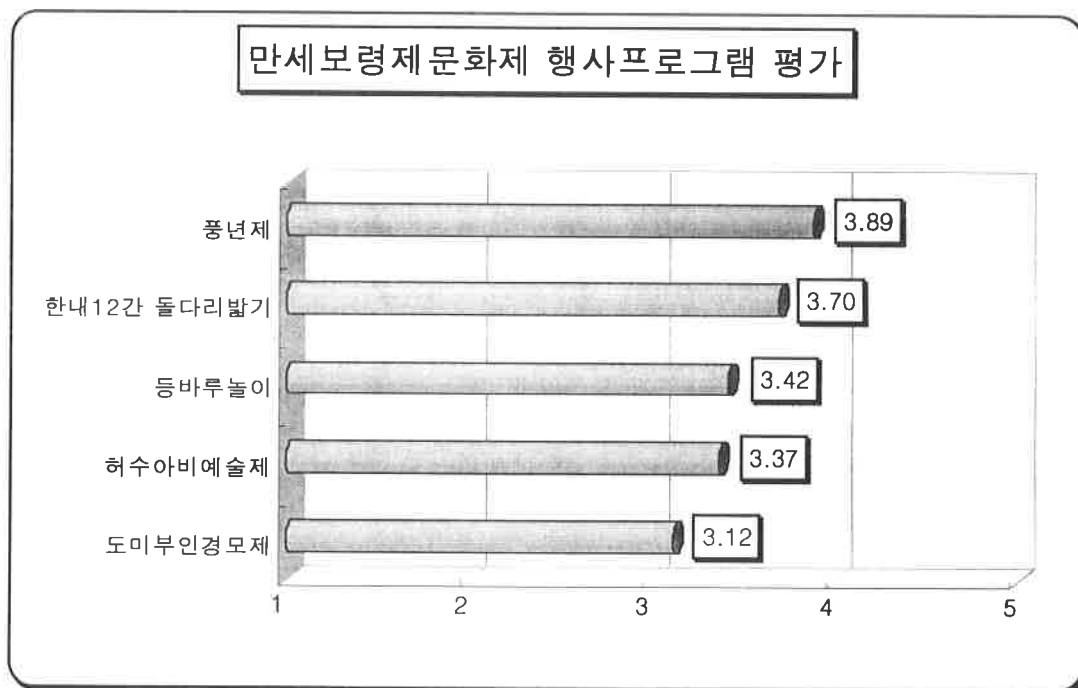


(4) '97만세보령문화제 방문객들의 경제적 효과분석

경제효과	방문객 평균소비지출액(1인당)	14,862원
	지역주민 평균소비지출액(1인당)	14,949원
	외부방문객 평균소비지출액(1인당)	23,044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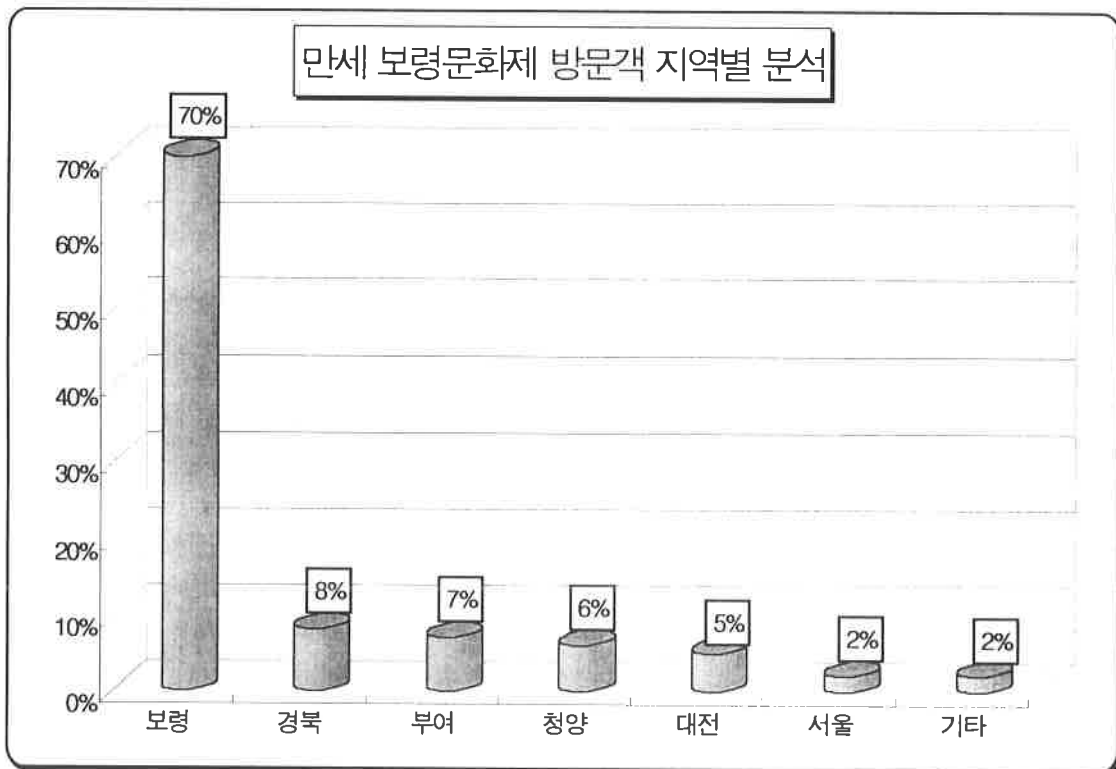
(정강환. 만세보령문화제 축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7)

(5) '97만세보령문화제 행사프로그램 평가



'97년 만세보령제에서 개최된 주요 프로그램들을 평가 분석한 조사에서 '풍년제'가 3.89라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허수아비에술제와 연계되어 높은 방문객 만족도를 유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보령지역의 전통적인 행사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내12간 돌다리밟기' 행사가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많은 지역주민 그룹이 참여한 민속공연과 어우러져 높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내12간 돌다리밟기'는 보령의 부각되는 민속프로그램으로서 관광상품 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6) '97만세보령문화제 방문객 지역별 분석



광역시와 도(道)차원에서 보는 구체적인 지역별 방문객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시장은 역시 지역시장인 보령으로 전체 만세보령 방문객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져 만세보령제가 지역주민들에게 대부분 의존하는 지역주민 단합축제라는 것이 나타났다. 2위는 경북이 8%를 차지했다. 이들은 도미부인경모제에 초대된 사람들로 나타났다. 3위는 보령과 인접한 부여가 7%를 차지하였고, 4위 역시 보령과 근접한 청양이 차지하였다.

위의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문화관광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대전을 핵심 관광목표시장으로 정하여 지속적인 축제홍보를 통해 원거리 시장을 유인해야 할 것이다.(정강환, 「만세보령문화제 축제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1997, 34쪽.)

2) 보령 머드축제

(1) 개최 일 : 1998. 7. 16 ~ 7. 19 (제1회)

(2) 개요 :

보령의 머드화장품 국내외 홍보 및 판촉에 기여하며, 보령 관광특구일원이 세계적인 관광휴양 명소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머드축제를 개발하였고 '98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98 문화관광축제에 포함되었으며, 또한 이천도자기축제, 금산인삼축제와 함께 전국 3대축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령시의 해안선 길이가 무려 136km 에 이른다. 해안에 무진장 깔린 진흙을 가공하여 보령산 머드팩을 생산했는데, 성분분석 결과 이스라엘 사해 진흙보다 품질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천해수욕장 내에 머드팩 하우스를 설치하고 관광객에게 피부 마사지를 제공한다. 청정 진흙과 황토.백토를 적당한 비율로 혼합한 머드로 피부 마사지를 한 후, 한시간 가량 일광욕을 즐긴다. 그리고 바닷물로 씻어 내면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운 피부를 가꿀수 있다. 한화콘도의 개원으로 관광객 수용태세를 더욱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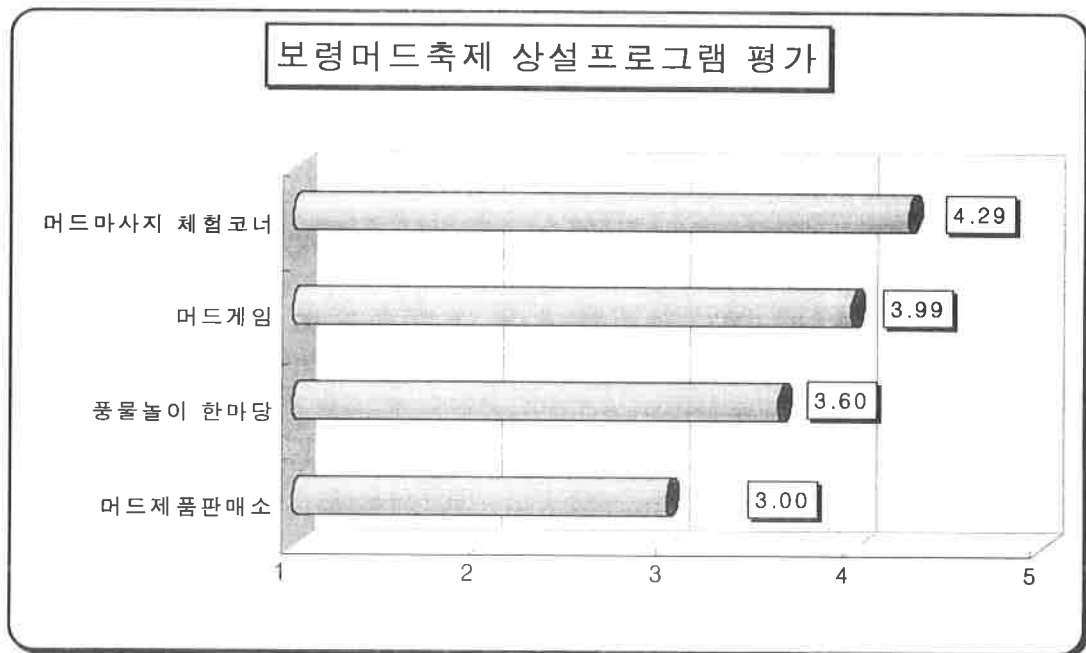


(3) 보령 머드축제 행사프로그램

주요 행사		비고
기본행사	제례의식(지신+수신), 개막식	
머드 관련 이벤트	머드마사지, 머드보디페인팅 콘테스트, 머드씨름대회 머드미인선발대회,	
연계행사	불꽃축제, 국악공연, 세미누드촬영대회	
특산품판매	머드제품(화장품, 머드맛사지원료 등), 기타 특산물(벼루, 석공예품 등)	



(4) 보령머드축제 주요 행사프로그램에 대한 방문객 평가



① 4.29라는 전체평균치(5점척도분석)로 볼 때 ‘머드마사지 체험코너’는 머드축제 행사프로그램들 중 가장 인기 있었던 행사로 파악할 수 있고, 특히 전체 방문객들로부터 일관된 높은 반응으로 보령머드축제의 중요 관광이벤트로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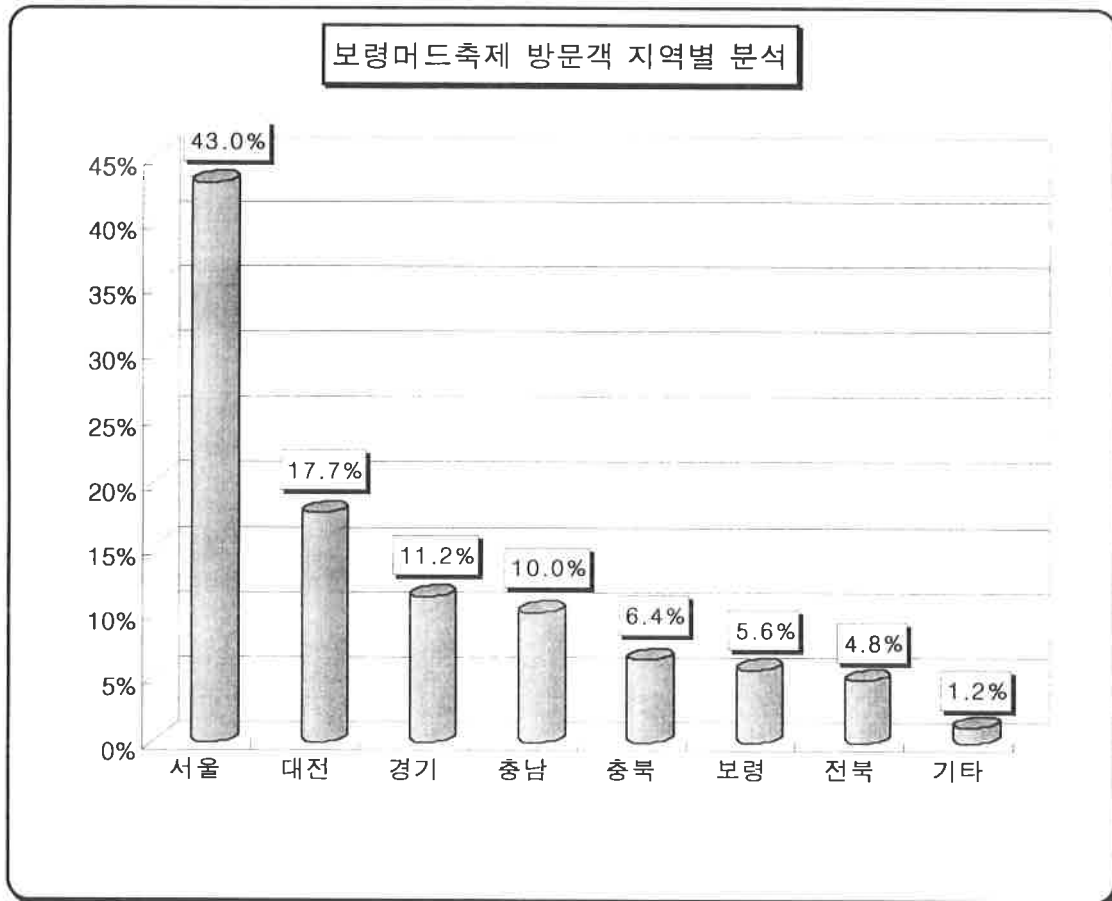
② 머드게임의 경우 전체 평균치(3.99)로 판단할 때 매우 반응이 좋았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나, 특히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반응이 높은 행사로 파악되었다.

③ 풍물놀이 한마당의 경우 방문객의 평가가 3.60으로 비교적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타 행사와 비교차원에서 높은 반응을 얻지 못하였다.

④ ‘머드제품 판매소’의 경우 행사프로그램 항목중 방문객들로부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으로서 내년도에는 개선이 요구되는 항목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국내 관광객들로부터는 부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은 심각한 문제점을 암시한다.

정강환, 「제1회 보령머드축제의 행사평가, 방문객시장조사, 관광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1998, 58쪽-61쪽).

(5) 보령머드축제 방문객 지역별 분석



광역시와 도(道)차원에서 보는 구체적인 지역별 방문객 분석에서 1998년(제1회) 보령머드축제는 중요목표관광시장으로 예측한 서울이 43.0%라는 높은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였고, 중부지역권의 가장 핵심시장인 대전은 17.7%로서 2위를 차지하였다.

경기지역이 11.2%의 시장점유율로 3위를 차지했으며, 충청지역권시장인 충남과 충북이 각각 10.0%와 6.4%를 차지함으로써 4위와 5위를 차지하였다. 경기지역의 경우 의정부, 평택, 성남, 충남의 경우 천안, 공주, 홍성, 충북의 경우 청주 등지에 많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타지역 관광축제가 주로 근거리 관광객시장에 집중 의존하고 있는데 반해 보령머드축제는 지역권을 벗어난 중·원거리 관광시장을 높은 비율로 유치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정강환, 「제1회 보령머드축제의 행사평가, 방문객시장조사, 관광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1998, 2쪽).

7. 보령의 돌문화 관련 축제개발 환경

가) 민속소재 한내12간 돌다리밟기

지금으로부터 500여년 전 조선조 세조 4년경에 대천리(한내)변 각 동리 거주 주민들이 대천천을 건너 다니는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막대한 인력을 들여 돌다리를 놓았던 것으로서 그 지점과 주변 상황을 고찰할 때 여러가지 문헌상으로 보아 이 지방에 인류가 정착하기 시작한 때는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대천시장(한내장)은 그 크기만해도 인근 3,4개 군 중에서도 가장 큰 장(5일장)이 형성되어 왔고 입지조건으로 보더라도 남쪽으로는 서천, 비인, 부여, 홍산, 웅천, 미산, 남포 방면, 북쪽으로는 청양, 화성, 광천, 홍산, 예산 그리고 보령땅 각면에서 장에 오고가는 장꾼들 또는 전라도 방면에서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간느 선비, 북쪽으로 향하는 과객, 장돌림 보부상장꾼들의 관문 역할을 하여온 돌다리인데 이곳 돌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다른 곳을 이용할 수가 없는, 없어서는 안될 돌다리였고, 그 당시는 주민생활에 크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돌다리인 것이다. 수백년동안 다리제를 연중 일대행사로 지내오는데 시기는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 날을 기하여 구시 동민들이 부역을 내어 먼저 다리 보수공사를 하고 제물을 장만하여 차려놓고 선정된 제주가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기 전후해서 구시 농악대가 출동하여 남녀 노소가 어울려서 흥겨웁게 풍장을 치고 춤을 추며 일대 큰 잔치날과 같은 행사가 전해 내려오며 그뿐만 아니라 동네 여염집 부인들은 밤중 인적이 끊길때를 잡아 제물을 다리 위에 정성껏 차려놓고가정의 안택과 가족들의 건강을 비는 고사를 지내는가 하면 어떤 가정에서는 경쟁이를 불러다가 다리위에서 독경까지 하는 등 연중 계속되고 있어서 이 돌다리 근방에는 떡이나 밥덩이가 둥둥 떠있거나 흩어져 있어서 보기에 흉하기 그지 없었다.

이 돌다리에서 용왕제를 지내면 사람의 다리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이, 오랜 세월을 거쳐 지금까지 내려오는 하나의 관습이 되었다.

1992년 지금의 자리에 복원이 되었고 폭 2.38m 길이 50m로 그 구조는 1.5-2m 정도의 자연지대석을 묻고 그 위에 길이 4-4.5m, 폭 70-90cm, 두께 30-40cm로 다듬은 시렁돌 세 개를 얹어 다리바닥을 구성하였다. 석질은 거의가 화강암이고 하나의 교각돌만이 검은 사암이다. 내항동 왕대산에 한내돌다리와 같은 돌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이곳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이 3개의 시렁돌로 이루어져 통행에 적합하게 설계된 단순하고 실용적인 다리다. 문헌의 기록으로 보아 최소한 조선 전기이전으로 추측하고 있다.

(나) 민속소재 등바루놀이

1) 등바루놀이 연원

약 200년전부터 충남 서해안 도서지방에서만 전해오던 일종의 규수제(閨秀劑)이다. 음력 정월 대보름에 굴부르기 놀이라 하여 등불을 밝힌 아낙네들이 한해의 풍어를 비는 축제를 올린다. 또 음력 4月初8일을 전후하여 해당화가 만개하는 계절이 되면 이곳 섬마을 규수들이 모여서 굴캐기 경연을 벌여 큰아씨를 뽑고 부모님의 안녕과 마을의 무사함을 빌며 흥겨운 놀이로 하루를 즐기는데 이를 “등바루”라 한다.

2) 등바루의 어원

“등바루”의 어원은 정확하지 않으나 “등불을 밝힌다”는 말과 “등불을 켜 들고 마중 나온다”는 말이 병해진 준말 이라고 한다. 약 200여년 전부터 보령군 어천면 도서지방에서만 전승되던 규수제 놀이로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장고도에서만 간신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3) 처녀들의 어물채취 시합 「등바루놀이」

등바루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또 그 ‘등바루’란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실한 것을 모르고 있다. 다만 이곳에서 낳고 자라 지금껏 살아온 80노인들이 자기들도 처녀시절에 이 놀이를 하였고 또 이들이 자기들의 어머니나 할머니로부터 이 놀이를 하였다는 말을 들어 왔다는 이야기로 미루어 보아 이 놀이의 역사가 꽤 긴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한편 ‘등바루’란 말의 뜻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고 또 굳이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농담(弄談)을 즐기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등바루’가 「등(背)을 바르게」란 의미가 있어서 이는 성인이 되어서 누구나 가져야 할 성교(性交)의 자세(姿勢)를 가다듬는다는 뜻이 있을 법하다는 이야기가 오고 갈 뿐이다.

등바루놀이는 음력 3월 하순에서부터 4월상순 사이의 ‘조금’때에 실시된다. 예년의 통계를 보면 음력 4월8일 전후를 등바루날로 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는 이무렵이 옛날 같으면 연평도 조기잡이를 끝내고 귀항할 무렵이기 때문일 것이며, 둘째는 해변의 해당화가 만발하는 기간이 이 무렵이며, 셋째는 ‘사리’때에 비하여 ‘조금’때가 어촌의 일손이 비교적 한가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등바루 일자는 이무렵 부락내의 사정(事情), 장배(市船)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한편 등바루에 참석할 수 있는 처녀의 자격은 원래는 초경(初經)의 경험이 있는 미혼 여자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었다

한다. 그러다가 수년 전부터는 초경을 기준하던 것을 15세로 정하여 15세 이상의 처녀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등바루 놀이의 전날 이 놀이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처녀들은 아침 일찍부터 등바루 놀이터로 모여서 10~20kg 정도의 크고 작은 돌을 주워다가 둥근 돌담을 쌓아야 한다. 자기들의 놀이를 남성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이다. 돌담은 10m 정도의 둘레에 2m 정도의 높이로 쌓아지고 바다를 향한 한 쪽에 너비 1m 정도의 출입구가 뚫려 있다.

놀이날이 되면 처녀들은 먼동이 트기가 무섭게 어물채취도구, 작업복, 그리고 놀이때 입을 옷등 한 보따리를 들고 놀이터로 모인다. 처녀들이 모두 모이고 나면 이들은 두편으로 나누어 홍합, 굴 등 어물채취시합을 4~5시간 동안하게되고 더 많은 어물을 채취한 편이 이기게 되고,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채취한 사람과 가장 큰 것을 채취한 사람을 가리고 가장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이날의 왕관녀로 뽑여 이날의 주인공이 된다. 이처럼 어물채취의 심사가 이루어질 무렵 각 처녀의 가정에서는 처녀의 어머니, 할머니가 정성껏 마련한 점심바구니를 들고 이곳으로 모여든다. 어물심사가 끝난 처녀들은 회식을 하게 되는데 여왕은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먼저 먹게 되고 이긴 편의 처녀들도 맛있는 음식을 먼저 먹게 된다. 회식이 끝나고 나면 처녀들은 자신들이 만든 돌담안에서 놀이때 입을 옷으로 갈아 입고 놀이가 시작된다. 이때 놀이의 형식에는 제약이 없고 여러 가지 형태의 놀이가 계속된다. 춤과 독창, 원무, 꽃나비서기 등으로 흥을 돋군다.

나) 남포벼루 역사적 사실과 생산현황

고서에 남포의 연석(硯石)은 화초석으로 금색의 화초모양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 고장의 벼루는 그 역사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추측되나 기록이 없어 그 연대는 확실치 않다. 청석, 백운상석등을 재료로 만들어지는 남포벼루는 한때 일본, 대만까지 수출하였다고 하는바 지금도 7~8여명의 벼루인들이 벼루제작을 생업수단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1987년 12월 29일 보령 남포벼루 제작기능이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 6호로 지정받게 되었고 청라면 의평의 김진한이 그 기능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또한 1년에 생산되는 벼루의 수는 약 95,000개 정도이다.

· 벼루공장의 현황

(단위 : 천개, 백만개)

면 별	공장수	종업원수	생 산 량		면 별	공장수	종업원수	생 산 량	
			수 량	금 액				수량	금액
계	9	48	181	614	남포면	1	5	10	10
용천면	5	28	62	114	청라면	3	15	109	500

(제4회 보령시 통계연보)

1) 벼루의 기원

송나라 미불(米芾)의 '연사제요(硯史提要)'에 의하면 진나라(서기:265 - 316년) 때부터 비로소 벼루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명나라 양신(楊慎)이 쓴 '단연록(丹鉛錄)'의 묵설(墨設)에도 "위, 진 때에 비로소 옷과 소나무 그을음을 섞어 묵환을 만들었다. 또 진나라 사람들이 주로 요심연(凹心硯)을 쓴 것은 먹물을 담아 두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벼루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진나라 때부터라는 사실을 두 기록이 신빙성 있게 증명해 준다. 그런데 상해박물관 공예미술연구소에서 최근에 발행된 [필묵지연도록(筆墨紙硯圖錄)]에 원시시대 벼루를 비롯하여 몇몇 도록이 있는데 보기에 벼루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여 애매모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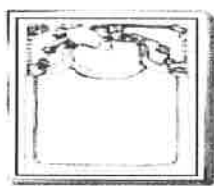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벼루는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것으로, 흙을 빚어 만든 가야시대(伽倻時代)의 원형 도연(陶硯)일 것이다. 이 도연은 높이가 5.6 cm이고 입지름이 11.3cm-12.2cm이며 밑에 팔막한 다리가 다섯개 붙어 있다. 연면(硯面) 주위에는 연지(硯池)가 둘러져 있다. 다리에는 별다른 장식이나 문양 없이 위에서 아래로 깎은 칼자국이 나 있다. 이 가야도연이 진나라의 요심연보다 약 1세기 반 정도 뒤떨어졌으니 비교적 일찍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2) 벼루의 종류

벼루의 종류는 재질(在質)을 말하는 소재(素材)에 따라 또는 모양과 형식에 따른 형제(形制)에 따라 또는 실용연인지 아니면 완상연(玩常硯)인지를 가늠하는 취향에 따라 각각 나눠 볼 수 있다. 벼루의 재질은 예로부터 도자(陶磁)와 천연석이 있어 왔고 이 밖에 옥, 비치, 마노, 수정, 은, 나무, 옷을 소재로 한 벼루가 있다. 그래서 옥으로 만든 벼루는 옥연(玉硯), 옷으로 만든 벼루는 칠연(漆硯), 나무로 만든 벼루는 목연(木硯)으로 부른다. 또 기왓장으로 만든 벼루는 와연(瓦硯), 전돌로 만든 벼루는 전연(塼硯), 돌가루를 구워 만든 벼루는 석말연(石沫硯)으로 부르고, 펄을 말리고 찌서 만든 벼루는 징니연(澄泥硯)으로 부른다.

벼루의 형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많은 것은 길쭉한 네모꼴인 장방형(長方形)을 기본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벼루를 장방연이나 사직연(四直硯)이라 부르고, 장방형이되 벼루 바닥과 물집이 따로 없이 민짜로 만든 벼루를 판자와 같다 하여 판연(板硯)이라 부른다. 또 두터운 벼루들의 밑바닥을 앞쪽에서 뒤쪽으로 비스듬히 파서 손바닥을 집어넣어 들 수 있도록 만든 벼루를 삽수(揷手)나 초수(抄手)라 부르는데, 이러한 삽수식이 발달하여 두께가 7~8센티미터나 되는 태사연(太史硯)이 된다.

또한 돌의 산지를 따서 단계연, 흙주연, 위원연, 해주연, 남포연 따위로 부르고 조각에 따른 이름, 이름테면 달과 매화를 조각한 매월연(梅月硯), 용조각의 용연(龍掬), 소나무, 대나무, 매화를 조각한 삼우연(三友硯)등이 있다. 또한 돌의 산지와 체식을 합쳐서 단계난정연(端溪蘭亭硯)이니 흙주죽절연(翕州竹節硯)이니 종성종연(鍾城鐘硯)이니 남포팔릉연(藍浦八稜硯)이니 한다. 그리고 돌이름에다가 조각의 양식을 덧붙여 고산석천리연(高山石天鯉硯)이니 남포석폭포연(藍浦石瀑布硯)이니 한다.



(용연)



(산수연)



(석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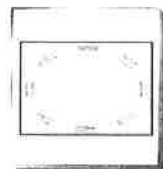
(심지연)



(천리연)



(팔괘연)



(포도문일월연)



(하엽연)

3) 남포석

(1) 금사문 필연 산지(產地)

보령에서 생산되는 것이 주종이고 벼루라면 우선 시꺼먼 벼루를 떠올릴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보령의 남포석이다.

(2) 원석의 특징

남포석은 원석의 재질이 매우 다양해서 상품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벼루들중 최고에 속하지만 하품은 역시 최하위를 나타낸다.

(3) 남포석 벼루의 특징

원석이 너무 다양한 종류이어서 특징을 나타내기가 방대하지만 상품은 기준으로 삼으면 먹물이 쉽게 마르지 않고 입자가 고르게 분포되며 다양한 조각을 새기기에 적당하여 벼루로서는 최상품에 속한다.

[임원십육지]를 쓴 서유구도 그의 저서에서 저자거리나 시골 서당에서도 남포돌 아닌 벼루가 없어서 사람들은 귀히 여기지 않으나 그 중에 좋은 벼루는 단계나 흠주에 뒤지지 않는다고 했고, 이규경(李圭景)도 남포 보령의 화초석은 우리나라 제일이라 했고, 정다산도 남포 수침석을 첫째로 꼽았다. 따라서 제일 흔한 것도 남포 벼루요, 제일 귀한 것도 남포벼루라는 데는 딴 말이 있을 수 없다.

조선조 이후 벼루 공급의 70% 정도를 차지해 온 남포석은 서당의 서당벼루로부터 조선조의 문화를 주도한 사대부의 문방 필수품으로서의 벼루를 공급해 왔으므로 조선의 문화는 남포석 벼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필자가 모은 남포석 벼루의 실물 검증과 남포석에 관한 가장 권위 있고 믿을 만한 세 사람의 판단에 따르면 남포 오석이 벼루들로 좋다는 항설은 잘못된 것이다. 남포돌의 석질은 하, 중, 상의 세 가지로 나눈다면 하질인 잡갱의 돌과 조선시대부터 좋은 벼루들을 캐낸 두멍골돌과 최상급인 금사문돌이다. 금사문이 든 상품 돌을 백운진상석으로 부른다. 남포석 옛 벼루에 새겨진 조각은 벼루의 수가 워낙 방대하므로 조각의 다양성도 거의 모든 유형을 망라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런 만큼 남포 벼루에 새겨진 조각의 문양은 한 지방의 특색이거나 단순한 공예의 종목을 넘어서 한국 미술의 원형질 내지는 생활 정서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조각 수법은 극히 일부의 사실성 조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서 도식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평면적으로 처리된 것 등을 볼 수 있다.

다) 보령의 오석과 석재단지현황

1) 전국의 석가공업체의 오석 수요를 보령시의 웅천지역에서 공급하기 시작한지 100여년 정도가 되었고 보령시의 웅천지역에 석가공업체가 집성촌을 이루기 시작한지 약70여년정되었다.

2) 웅천에서 생산되는 오석의 질이 가장 높고 많이 생산이 되었으나, 오래 동안 채취해 왔고 일제시대에 일본에 의해서 많이 채취되어 지금은 거의 고갈된 상태이다. 지금은 중국에서 오석을 수입해서 쓰고 있는 형편인데 그 질은 보령시 웅천면의 것보다는 많이 떨어지지만 오석을 채취하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투자한 만큼의 채산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3) 현재 웅천면에는 약 80여개소의 석가공 공장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약 400여명 종업원이 석가공업에 종사하고 있다. 보령시는 약 4,5000만평의 부지를 석재농공단지로 웅천지역에 조성하였다.

4) 웅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석가공 제품은 묘석이 80%, 건축석 15%, 석공예(소품) 5%의 비율로 생산되고 있다.

5) 오석은 까마귀 털처럼 빛깔이 검고 윤기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6) 오석은 상석과 비석용, 청석은 벼루용, 건축재료나 망부석, 종교예물용으로 주로 애석(艾石)이 사용되고 생산된다.

7) 웅천읍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벼루가 연간 9만5천개, 묘비석 1천8백65㎡ 등으로 전국 생산량의 약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라) 석탄박물관

1) 1995년 5월 동력자원부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이 36억원을 들여 건립한 뒤 보령시청에 기증했다. 지금은 보령시가 운영하고 있고 규모는 7,612평 부지위에 지어진 연건평 484평의 2층 건물과 야외전시장, 광물표본과 굴진·채탄·운반장비 등 2,500점과 야외전시장의 인차 광차등 대형장비 20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2) 박물관 주위에 7-8개의 탄광이 폐광된 상태로 있고, 박물관 뒤쪽에서 산을 넘어 옥마터널의 개화전창까지 약 2.6km의 운탄궤도가 있다.

3) 석탄박물관에는 319점의 화석이 있는데 대부분이 식물화석이다.



4) 석탄박물관 월별 관람객 대비표

월별	'98 입장객수	'97 입장객수
1월	3,696명	4,063명
2월	3,938명	2,443명
3월	5,699명	3,865명
4월	8,944명	6,240명
5월	15,262명	15,547명
6월	7,592명	7,197명
7월	23,141명	15,411명
8월	41,790명	45,440명
9월	14,569명	4,689명
10월	13,655명	10,249명
11월	7,411명	4,099명
12월	.	3,383명

석탄박물관의 관람객수의 증감에 따른 원인을 분석해 보면 4월에서 5월로 가면서 관람객의 수가 많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4·5월이 학생들의 봄소풍 시즌이라서 박물관의 관람객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나들이를 나서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서 관람객이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7-8월은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인파가 늘어나면서 연계관광지로 많은 관람객이 찾은 것 같다. 가을 시즌인 9월에 관람객의 수가 많이 떨어졌다가 가을 소풍시즌인 10월에 다시 관람객이 증가함을 보인다.



5) 보령의 광공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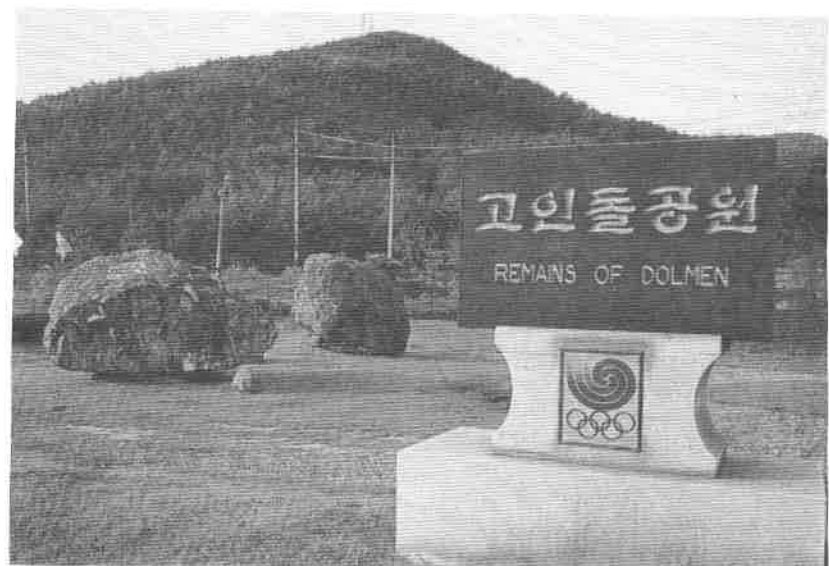
근대에 이르러 일본인들의 금화정책 실시에 따라 금광개발이 활기를 띄게 되었고 보령지역에서도 1920년대부터 주포면 봉당리를 비롯하여 청소면 성연리, 진죽리, 재정리와 청라면 향천리 그리고 웅천면 대창리(절골)에 금광이 개발되었다. 보령탄전은 차령산맥의 산세를 따라 성주산을 중심으로 동북에서 서남으로 뻗어 내린 계곡에 무연탄이 매장되어 있다. 보령탄전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58년전 일본인 島村이 정밀조사를 하여 탄맥의 분포도를 완성하였고, 해방후인 1948년에 장순각씨 등 한국인에 의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보령탄전은 성주·청라·미산 등 3개면을 중심으로 2억3천만톤이란 천혜적 부존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여기서 채탄되는 무연탄은 연간150만톤으로 우리나라 석탄생산량의 10%에 해당하는 양을 생산하고 있다. 보령탄전의 전체면적은 436.5km이며 여기에 209개의 단위 광구가 산재하여 있다.

이중 70여개 탄광이 개발에 착수 50여개의 광구에서 채탄이 되었으나,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19개소의 탄광이 폐광 조치되고, 이후로도 계속 정리되었다.

6) 보령의 광산현황 (88년말 현재)

광산명	소재지	종사원		광종	연간생산량
		남	여		
신성산업	성주 성주	1,320	103	무연탄	347,554톤
대 보	성주 성주	211	12	〃	66,243톤
성 림	성주 성주	68	7	〃	24,958톤
경 원	성주 성주	146	14	〃	75,742톤
삼 풍	청라 라원	89	4	〃	26,397톤
미 산	미산 풍계	24		〃	6,033톤
청 곡	청라 향천	27	2	〃	9,579톤
동 보	청라 의평	65	5	〃	21,503톤
태 전	성주 성주	64	12	〃	16,094톤
경원동림	성주 성주	51	8	〃	9,710톤
삼 광	청라 라원	37		〃	8,610톤
홍 명	성주 성주	25		〃	17,490톤
서 원	청라 라원	163	11	〃	49,668톤
월산대월	청라 라원	65	5	〃	24,564톤
삼 보	성주 성주	61	7	〃	26,082톤
원풍건일	성주 성주	33	2	〃	18,469톤
심 원	성주 성주	20	4	〃	25,290톤
보성삼아	성주 성주	52	6	〃	30,628톤
남 광	주산 용수	52	10	〃	72,950톤
대 봉	성주 성주	20	4	〃	13,870톤
대 창	미산 도화담	52	9	〃	36,595톤
우 남	성주 성주	21	7	〃	32,248톤
성 태	청라 라원	60	7	〃	47,377톤
우 성	성주 성주	78	11	〃	26,137톤

마) 고인돌공원



지석묘라고도 하는 고인돌은 선사시대 유적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다. 고인돌은 의식을 거행했던 "제단고인돌"과 죽은 사람을 매장할 때 사용했던 "무덤고인돌"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무덤고인돌"이다. 보령 지역에는 술한 고인돌이 산재해 있다. 이는 일찍이 보령 지역이 선조들의 삶의 터전이었음을 입증한다. 고인돌이 발견되는 대부분의 지역이 수렵과 농경생활에 용이한 비옥한 터전이었음을 의미하므로 보령 역시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커다란 덮개들을 옮겨 고인돌을 만들려면 상당한 기술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고인돌은 우리 선조의 공동체 의식 의 한 증거이기도 하다. 보령 지역의 고인돌이 산재해 있는 지역은 해안선을 끼고 있는 곳으로, 양식은 덮개들을 3,4개의 받침돌로 괴고 있는 남방식이 주를 이룬다. 밝혀진 고인돌 숫자만 해도 300여기에 이른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관창리, 진죽리, 주교리, 연지리, 양기리, 화현동 등 수십 곳. 마제석검 등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다수 출토된 관창리 고인돌이 지난 87년 공원으로 조성되어 역사의 산교육장인 동시에 편안한 휴식처 구실을 하고 있다. 공원 안에는 3기의 관창리 고인돌이 있는데 모두 남방식이다. 또 북방식 고인돌의 모형을 만들어 놓아 찾는 이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주차장과 벤치,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못까지 꾸며져 편히 쉴 수 있을 만큼 아기자기하다. 공원 뒤편 마을에 식당이 있고 인근 신대리에는 토종닭으로 유명한 향토 음식점이 있다.

찾아가는 길은 대천역에서 21번 국도로 북행. 시가지를 벗어나 관창공단 입구, 관창초등학교 앞 커브길을 돌아서면 길 오른쪽에 공원이 있다.

바) 기타 - 화석

1)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일반적으로 동식물의 잔해가 물 속에서 퇴적물을 덮었을 때 화석이 형성된다. 이것이 보편적인 화석방법이다. 문헌 생물의 육질 부분은 곧 부패되어 사라지지만 뼈와 조개 껍데기와 같은 견고한 구조들이 사실상 거의 완벽하게 남아있다.

그러나 견고한 부분의 미세한 구멍이나 틈속으로 스며든 지하수의 광물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퇴적하여 구조는 돌로 변한다. 화석화된 나무의 경우는 원래의 목질이 분자 하나하나까지 주로 규산염으로 된 광물로 대체된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경우 나이트와 섬유소위 구조와 같은 형태들이 완벽하게 보존된다.

또 다른 화석의 생성 방법은 원래의 구조물이 완전히 용해되어 소실되고 암석 속에는 빈 공간이 형성되거나 동식물 형상의 틀만이 남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틀은 원래 형태를 정확하게 보존한다. 때로는 이물질이 이 틀 속으로 침투하여 원래 형태와 같은 특이한 화석을 만들기도 한다.

나뭇잎의 틀과 다르게 매우 얇은 형태의 화석은 '흔적'이라고 불린다. 나뭇잎과 몸체가 연한 동물들도 탄소의 얇은 막 형태로 원래 모습의 실루엣이 보존되기도 한다. 미세한 부분까지 온전하게 보존된 고사리 잎의 화석은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모양이 특히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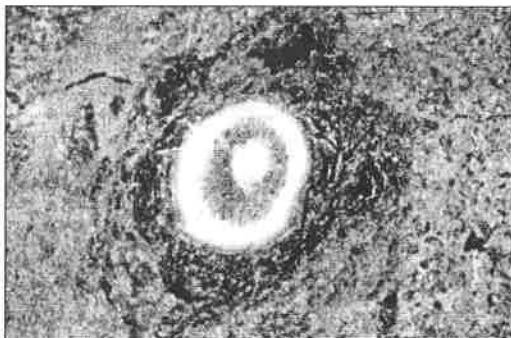
2) 어떤 암석에 화석이 만들어지는가?

압도적인 다수의 화석들은, 퇴적물이 쌓일 때 혈암과 석회암 그리고 사암 등의 퇴적암에 유기체가 묻힌 것이 발견된다. 변성암에는 화석이 매우 드문데 이는 암석의 형질이 바뀌는 과정에서 원래의 암석 층에 묻혀 화석들이 보통 파괴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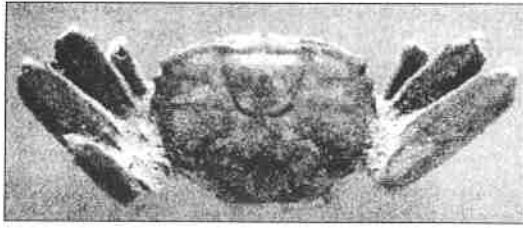
일부 퇴적암 등은 거의 전부가 견고한 화석의 퇴적물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도버해협에 있는 백악절벽은 두꺼운 백악층으로 만들어졌다. 석회암의 일종인 백악은 미세한 바다조개의 껍데기 파편과 미세한 바다동물의 잔해에 함유된 탄산칼슘이 주 성분을 이룬다.

대단히 드물기는 하지만 용암류에 삼켜진 식물과 동물의 모양들도 발견된다. 미국의 오리건주에서 발견된 보기 드문 화석은 200만년 전에 분출한 화산에 의해 죽은 물소의 완전한 몸체가 흔적을 남긴 것으로 판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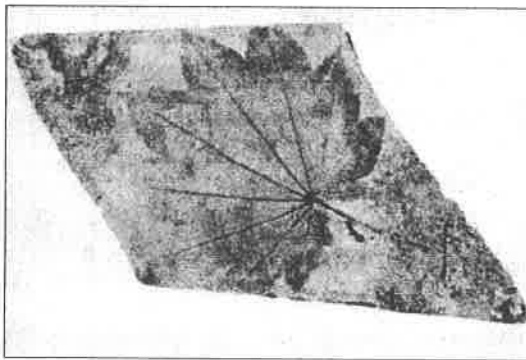
산호는 일반적으로 수심이 50m 미만의 얕은 바다에서 살며 수온이 18도 정도인 곳에서 산다. 그러므로 산호화석을 통하여 그 지역의 옛날의 기후와 땅 모양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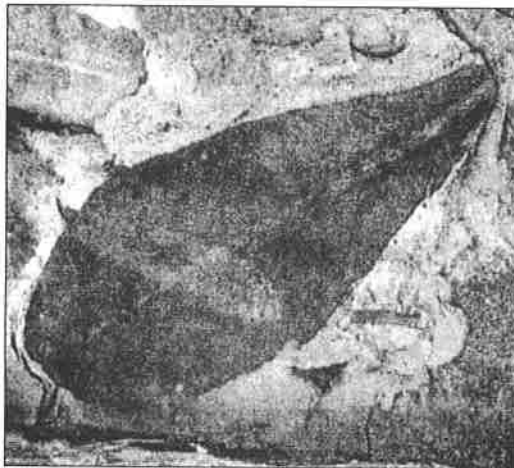
해안선 가까이에서 자라는 거의 완전한 형태로 화석이 된 계의 화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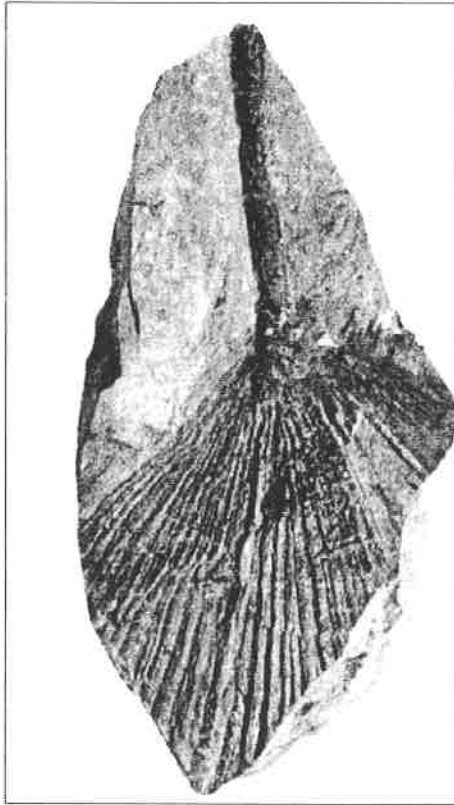
온대 지역에서 서식하는 단풍나무 잎의 화석이다.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오로소프테리스 브라우니아나 화석이다.



홋카이도에서 발견된 열대지역의 종려나무 잎사귀 화석이다.



8. 축제개최시기

가) 개최시기 판단요소(시간전략)

- 1) 무창포해수욕장 기적예정일시 연계여부
- 2) 강우량 및 기온
- 3) 보령지역 문화행사 시기 분포도
- 4) 보령지역 연간 내방객 분포도
- 5) 석재산업 연간 추이
- 6) 교통접근성
- 7) 초중고생 단체관람가능성
- 8) 프로그램 시행상의 계절적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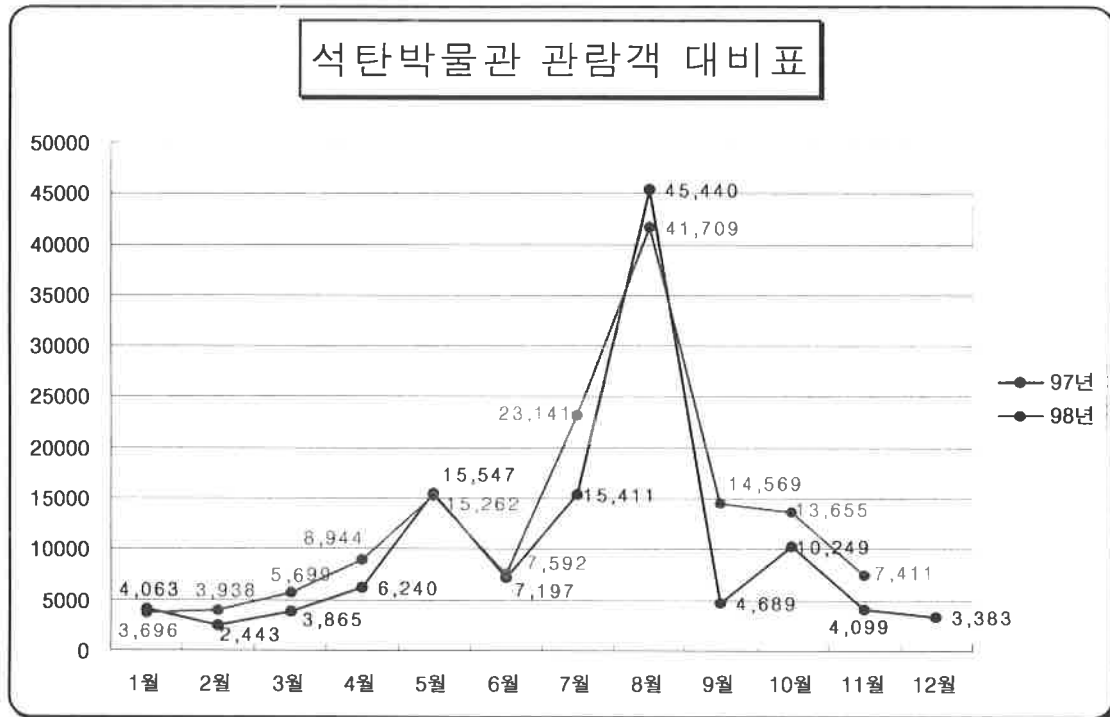
나) 개최시기안 장단점 분석

장단점	개최시기 1안	개최시기 2안	비고
	겨울안(12.18-20)	여름안(8.8-10)	
장 점	<p>①보령지역 문화축제 겨울행사 부재 극복 - 겨울축제 개발로 보령을 4계절 축제의 고장으로 발돋움시킬 수 있다.</p> <p>봄 -꽃게 여름-머드 가을-만세보령 겨울-돌</p> <p>②강우량이 없는 시기(평균34mm)</p> <p>③방문객수가 가장 낮은 12월이므로 서 비수기 극복 관광이벤트 역할 가능</p> <p>④석재산업 비수기로 웅천지역 석공장 참여도 제고가능</p> <p>⑤무창포 기적발생시기 연계 가능</p>	<p>①보령 연간 관광객 추이분석 - 방문객최대시기(6,700,000명) :관광객 유치상의 어려움 없으나 하계 관광객연계형 볼거리 제공 효과</p> <p>②무창포 기적발생시기 연계가능</p> <p>③석재산업 비수기로 웅천지역 석공장 참여도 제고가능</p> <p>④여름방학 초중고 탐방단 유치용이</p> <p>⑤석탄박물관 방문객 최대시기 (45,440, '97기준)</p> <p>⑥해수욕 래방객수 하강곡선 평형 유지효과기대</p>	
단 점	<p>①축제 마케팅 비용 확보 부담 -겨울축제 개발 홍보비</p> <p>②초중고생 학생유치 위한 사전 섭외필요</p> <p>③석탄박물관 방문객수 최저시기 (3,383명, '97기준) - 축제통한 방문객 증가효과</p> <p>④추위로 인한 야외행사의 어려움 과 시설비 증가</p>	<p>①차량정체 가중-하계 최대방문객수 기록으로 교통마비, 행사차질 발생</p> <p>②강수량 높다(평균211mm)</p> <p>③더위 피할 시설이 마땅하지 않다</p>	

<보령지역 사계절축제 전략을 위해 겨울 12월안을 추천함>

다) 개최시기 분석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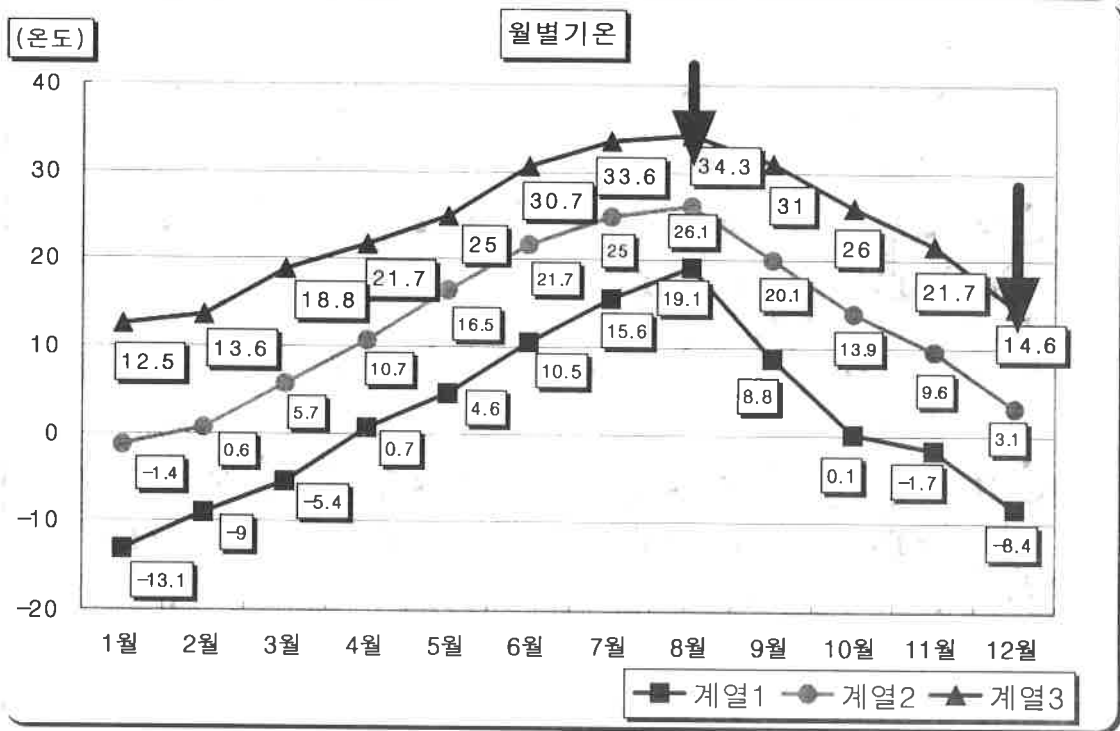
1) 석탄박물관 관람객 연간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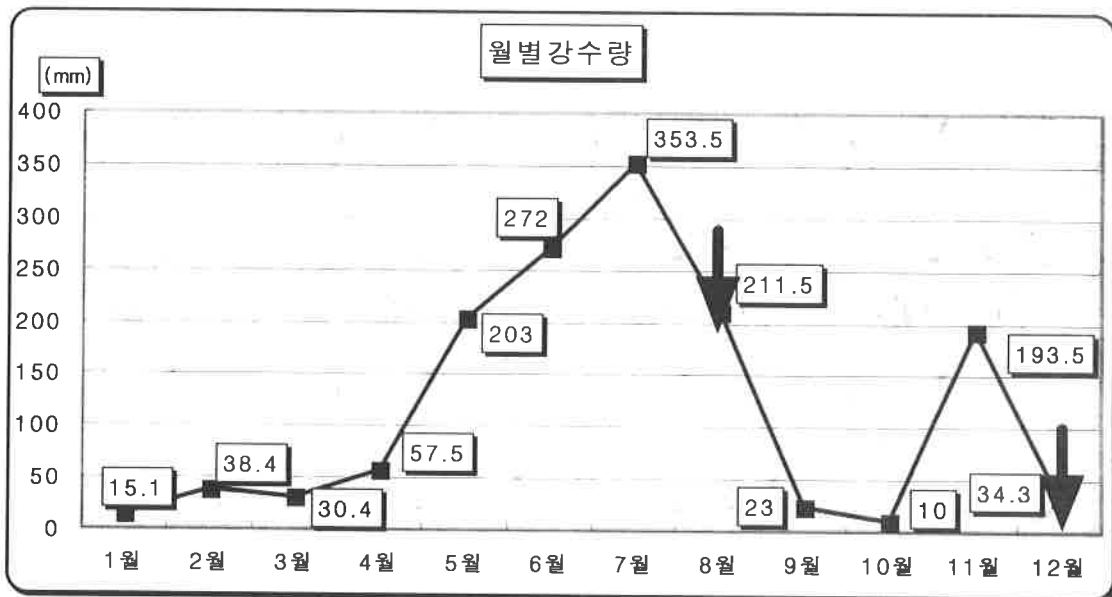
12월은 2월과 함께 3,000여명의 연중 가장 적은 석탄박물관 방문객수를 기록하고 있다. 12월에 돌문화축제가 석탄박물관과 연계하여 개최될 경우 방문객수는 약 5만여명 정도로 크게 증가하여 비수기가 가장 큰 성수기로 전환되며 박물관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보령의 기후 및 강수량

(제4회 보령시 통계연보)



(제4회 보령시 통계연보)



▶ 그래프 분석

(1) 기온분석

보령의 월별기온은 6~9월이 가장 온난하며 그중 8월이 가장 따뜻하다. 12월의 평균기온은 3.1℃이다.

기온과 개최시기와의 상관성을 보면, 월별기온 최대치인 7-8월시기는 기온상승에 의한 해수욕 방문객이 증가되는 점에 반해 겨울시기 기온은 평균 3.1℃이어서 겨울시기의 보령지역 방문객 증가의 문제는 기온 외적인 요소 즉 타문화요소의 개발 및 연계성을 통해 비수기 겨울철 방문객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그 개발과 연계성을 통한 경제활성화 요소로써 겨울축제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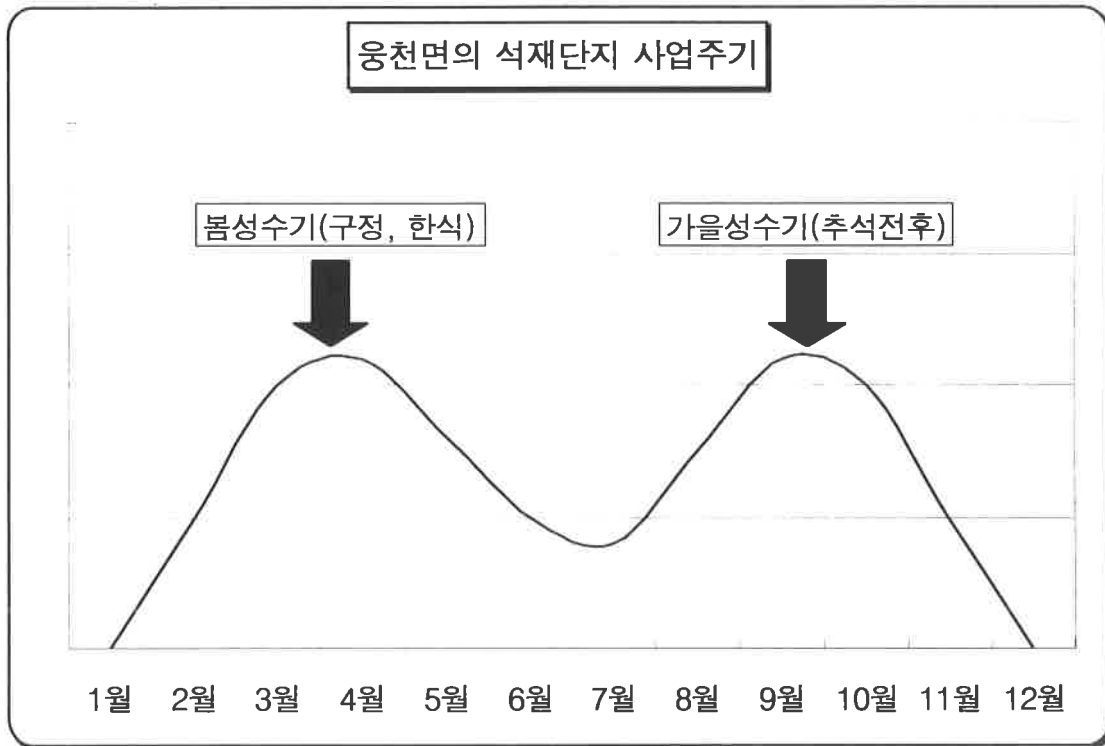
(2) 강수량분석

보령의 강수량은 5~8월이 가장 높으며 그중 8월(353.5mm)의 강수량은 211.5mm이며 12월은 34.3mm이다. 그리고 강수량의 연중 주기는 2회가 있는데 8월과 11월이 그 주기의 최고점이 되는 달이다.

보령지역은 강수량이 많은 달인 7-8월에 역설적으로 관광객이 최다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고, 1-4월, 12월에는 강수량이 행사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강수량으로 볼 때 여름을 제외한 우천의 염려는 크게 대두되지 않아 어느시기이던지 행사개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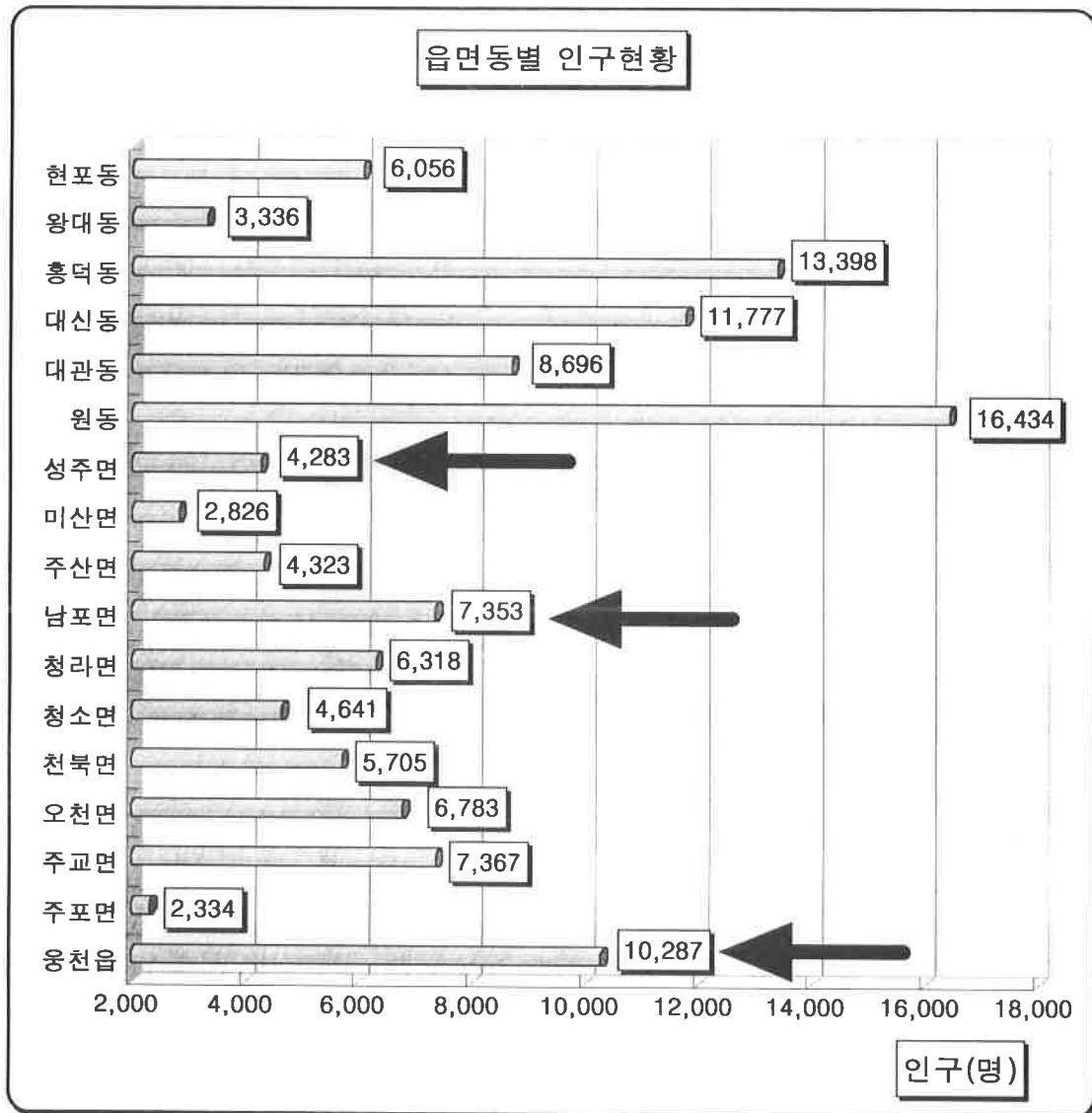
3) 석재(웅천면)의 사업주기



웅천면 석재단지의 사업주기를 개략적으로 분석할 때 성수기는 봄철 구정 한식과 가을철 추석전후로 12월에 돌문화축제가 개최될 경우 사업비수기로서 석재업계의 적극적 참여 유도가 가능하고, 축제를 통한 석재상품의 판촉으로 비수기에 업계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4) 개최지역 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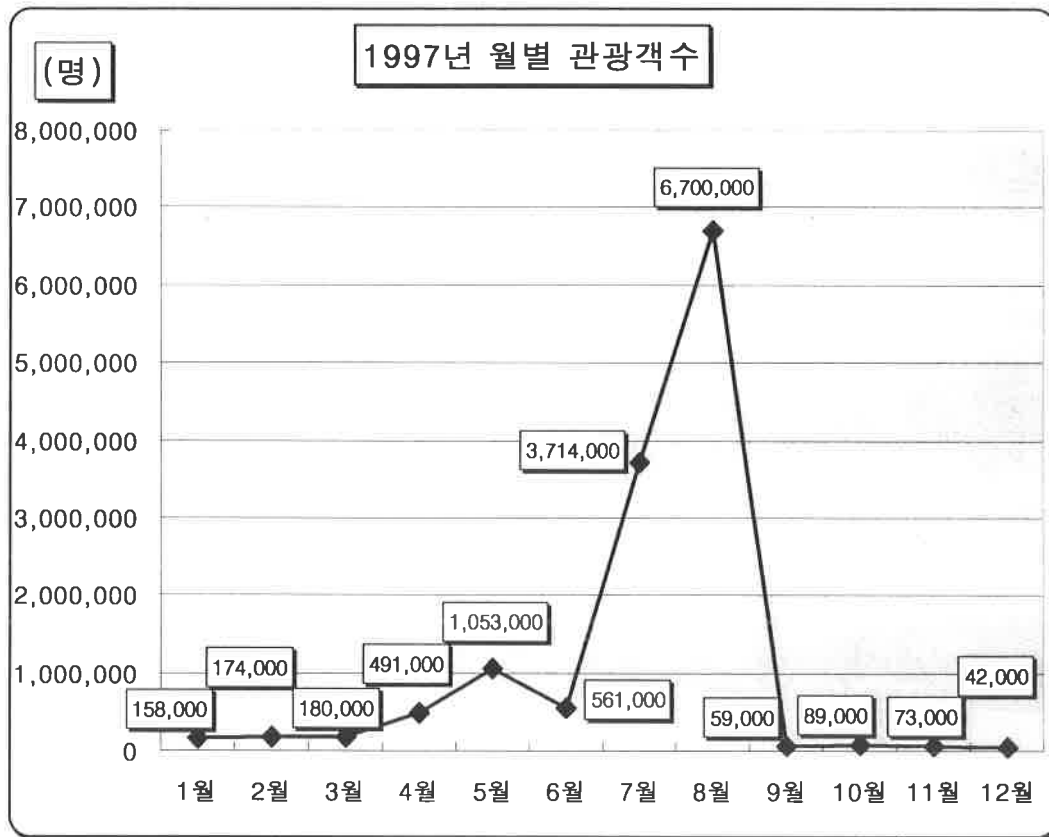
(제4회 보령시 통계연보)



보령의 인구현황은 원동이 인구 16,434명으로 가장 많다. 축제환경과 관련하여 버루가 유명한 남포면의 인구는 7,353명이고, 성주사와 석탄박물관이 위치한 성주면은 4,283명이며 석재로 유명한 웅천면은 10,287명이다.

축제 개최중심지역의 보령의 인구는 전체 충남인구 1,903,171명의 6.4%인 121,917명이다.

5) 1997년 월별 관광객수



보령시의 12월 관광객은 42,000명으로 월별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 12월 돌문화축제가 개최되는 경우 총10만명 정도로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며 이 경우 9월 이후 12월까지에 가장 활성화된 성수기로 전환되게 될것이다.

9. 축제장소 장소전략

가) 장소전략 판단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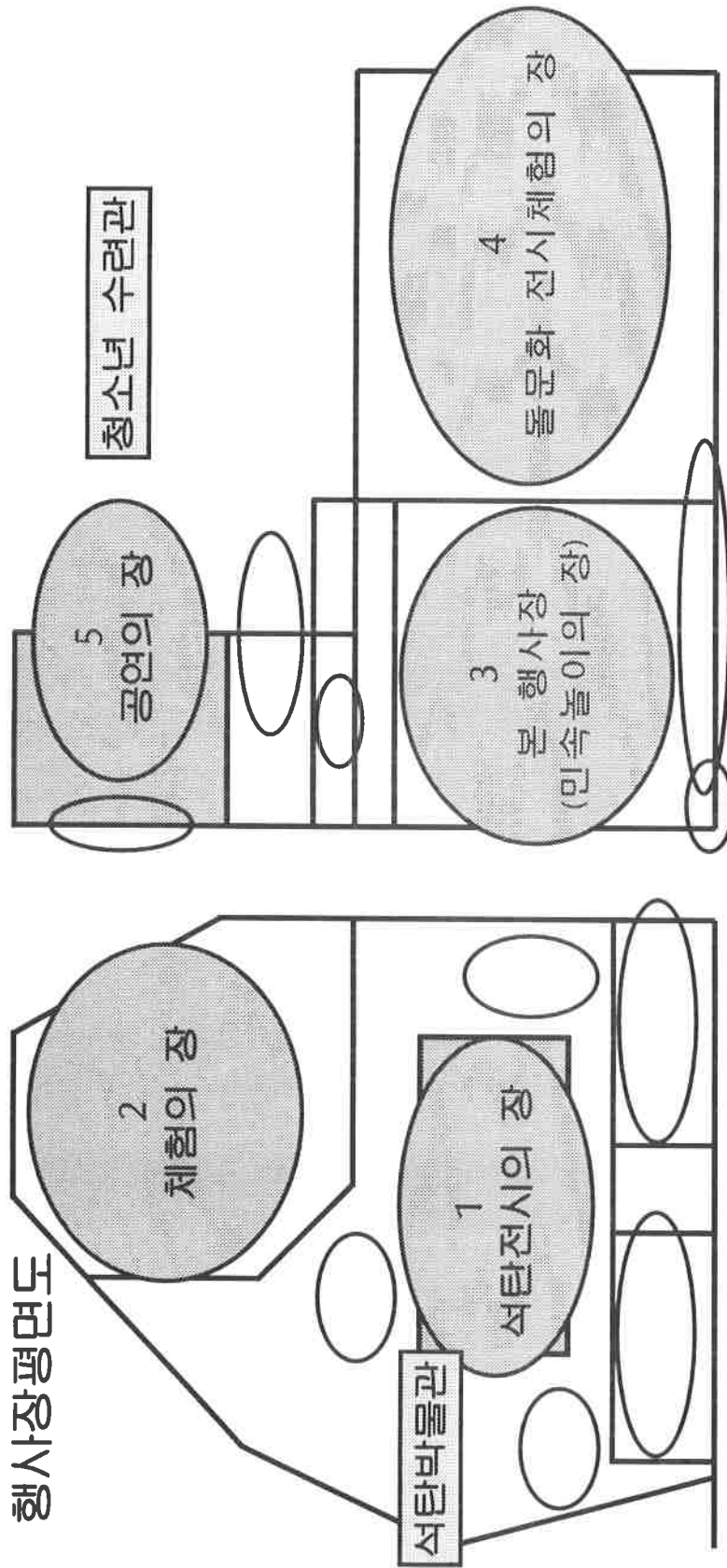
- 1) 경제적 파급성 : 축제개최에 따른 방문객 구매투자비용 흡수력 여부
- 2) 시설적 편의성 : 주차,식당,숙박,음식 등 기본시설 가용성
- 3) 방문객 접근성 : 행사장 방문객 접근의 용이성 및 광역교통체계 흐름도
- 4) 교육적 연계성 : 시설과 프로그램이주는 교육효과에 대한 시설의 적합성
- 5) 장소의 집중성 : 전시,체험,민속 등 프로그램간 인접성 및 연계성
- 6) 동선의 편리성 : 관람객의 프로그램 참여관람 편리성 및 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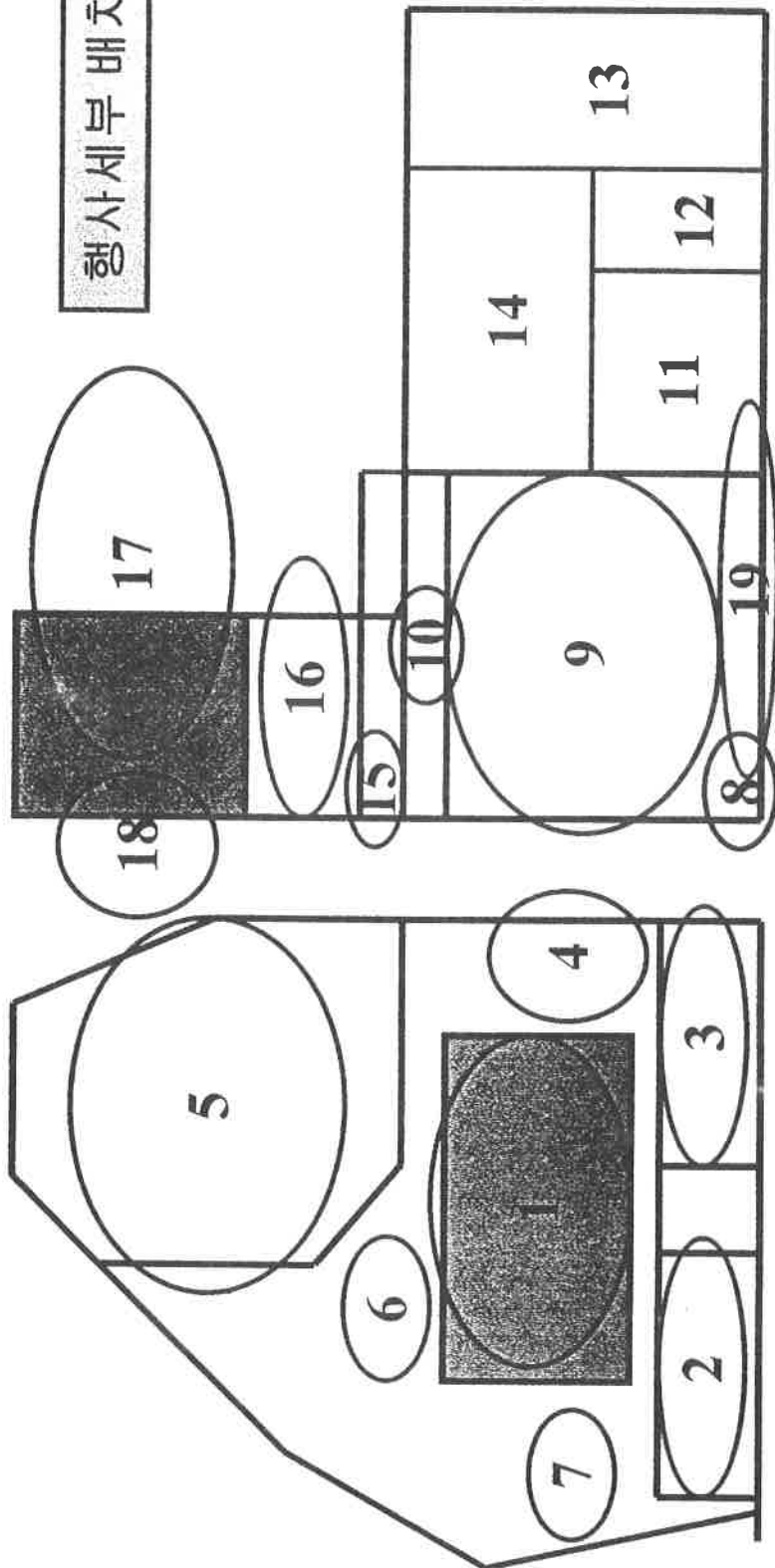
나) 개최시안의 장단점

장단점	개최장소 1안	개최장소 2안	비 고
	석탄박물관과 인접부지	보령시 돌다리 천변부지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장소의 집중성 제고 :석탄박물관 전시실과 야외행사장 인접 ②박물관 연계 교육효과 제고 ③보령진입 지나치는 관광객 유입, 유도 가능 ④석탄박물관 활성화 기여 ⑤박물관-웅천-벼루-무창포 연계 관광코스 개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돌다리가 설치되어 있어 다리 시설비 절약 ②상가와 음식점등이 연계되어 있어 경제효과 제고 가능 ③공간시설,주차시설 완비로 접근과 운영의 장점보유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장소에 인접한 상가,음식점 부재 하여 경제효과 미약 ②주차,행사 공유면적 협소화로 다소 운영의 불편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프로그램 관련 기자재 운송 및 셋팅비용 증가 (전시비용등) ②석재,벼루,예석 등 돌축제 자원의 흡인력 취약 - 원거리 요인 	

행사장평면도



도원배치부세행



공
파,
궤
아
↓

↑
ਸੋ
ਮ

개천

20

행사안 세부배치도

1	석탄박물관 전시물 관람 석탄탄생과정, 석탄생성과정 석탄 및 암석의 종류와 이용역사 보령지역 산탄지모형도, 지하모의갱도 동식물 화석전시회 갱도체험 희귀석(광물) 전시회	11	기념예석 조각작업 및 예석전시장
2	행사관계차량구역(주차장)	12	전시장
3	행사안내소	13	휴게공간
4	돌그림그려넣기	14	석공예 전시장
5	탄광체험구역 광부복장입어보기 좌암기굴착 갱도내 탄푸기 내손으로 찍는 탄	15	갱도 라이트쇼
6	휴게공간	16	수석전시회장
7	야외전시	17	보령시민 열린광장(에어토크, 노래자랑)
8	누석탑 쌓는 구역	18	열린 청소년 야외공연무대
9	본행사장 (민속놀이의 장) 민속놀이와 돌놀이의 장 첫째-일곱째 마당까지 기획	19	석장승거리
10	물관련 상품 장터 및 남포버루전	20	관광객 주차장

행사장 사진자료



석탄전시의 장(석탄박물관 내부전경)



탄광체험의 장(야외전시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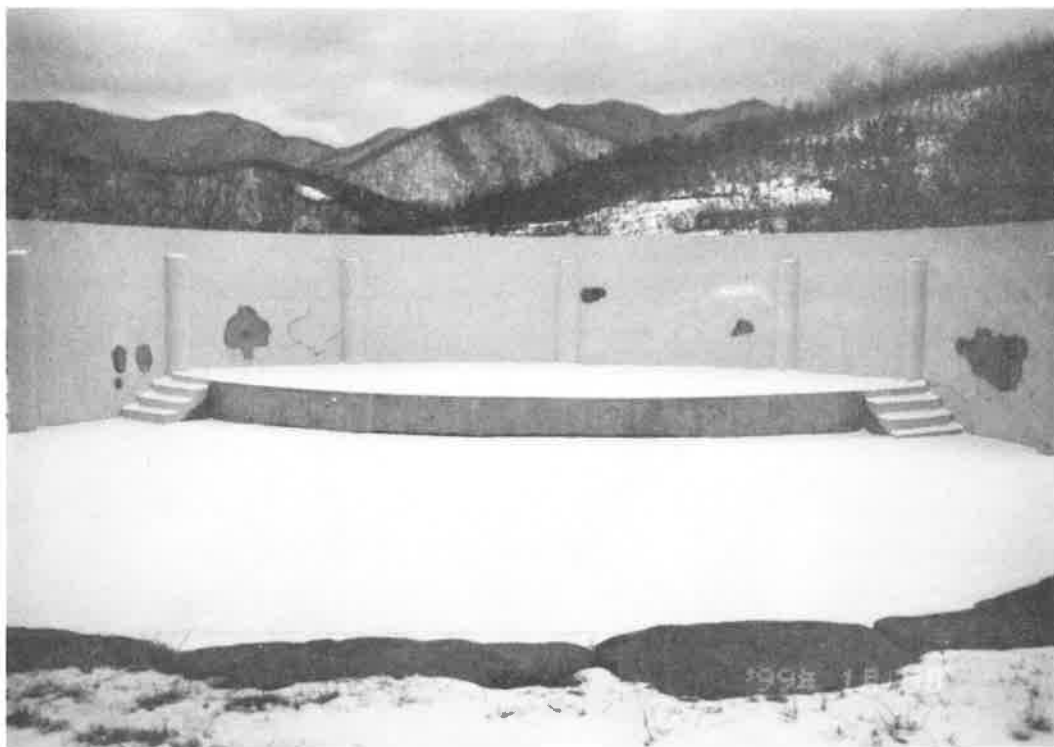
본행사장 전경(주차장 부지)



돌문화전시체험의 장(조각공원)



주차구역(석탄박물관 앞 개천변)



공연의 장(청소년수련관 및 부속시설)

II. 보령의 돌관련 소재와 이벤트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방향

1. 한내 12칸 돌다리밟기 연출개선 및 관광이벤트화 전략

가) 돌다리밟기 행사와 이벤트화 전략의 요체

조선전기 대천천 돌다리에서 지내던 다리제가 발전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정착된 한내돌다리밟기 행사는 매우 자연스러운 발생형태를 지닌 기원제에 해당된다. 즉, 이 다리는 한양을 가는 선비, 과객, 보부상이 드나들던 주요 관문이었으며, 오고가는 남녀노소들이 연출하는 하나의 생활사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어온 무대이기 때문에 온갖 기원과 희노애락이 깃들게 된 것이다. 제주가 있는 다리제가 마련되고 여염집 부인들의 고사와 독경소리, 용왕제 등이 이루어지면서 이 다리는 하나의 신앙적 영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러한 속설과 관습의 반영이 오늘에 이르러 보다 기원과 신앙의 민속놀이로 발전함으로써 근자에 보기도문 돌다리 행사가 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돌다리 밟기 행사는 축제화된 제의형식이며, 놀이와 樂과 종교가 넘나드는 믿음구조로 짜여진 민속놀이의 성격을 지닌다.

근자에 이르러 다리의 기능이 유실되거나 현대적 구조물로 대체되면서 그 속신적 효험과 신앙성이 약화됨으로써 다리제는 생활사적 내용을 갖지 못하고 제의적 형식성만 남기게 된다. 이 다리제가 일반의 호응을 얻기에 실패하게 된 요인이다.

따라서 한내돌다리밟기 행사는 그 성공여부가 '본래적인 신앙성의 회복과 놀이적 요소의 강화, 현대적 미적 연출을 통해 현대인의 정서에 어떻게 부합할 것이냐'를 통해 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이점이 본 행사의 이벤트 개선전략의 요체이자 연출안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벤트 개선전략 마련을 위해 검토할 사항들을 살펴보자. 예로부터 내려오는 민간의 신앙적 형태는 각종 제의로 대표되는 무형의 것과 솟대, 장승, 미륵 등 유형의 것으로 존재한다. 이 유무형의 신앙형태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배치하고 결합시켜 낼 것인가가 연출선상에서 고민할 사항이다. 그 다음에는 다리를 통해 드러내지는 인간사의 생활상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즉, 생활풍속도를 제의형식 속에 어떻게 녹여 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런다음 그 풍속의 형상이 놀이와 흥미를 유발하면서 흥을 이끌어내어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승화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돌다리에 얹힌 신앙과 제의와 풍속의 놀이화를 어떻게 엮어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방향이 이벤트 개선전략의 준거틀이자 연출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한내 돌다리밟기행사 진행안 평가

진행구조	이 행사의 진행구조는 크게 시가지행진, 다리제(祭儀), 다리통과, 브릿지공연, 기원굿 등 5가지 형식으로 짜여져 있다.
시가지행진	시가지행진은 돌다리밟기 행사에 참여하는 각종 인물들이 의상을 갖춰입고 사전에 시민에게 선보이는 형식을 띠고 농악대의 풍장소리에 맞춰 행사의 개최와 분위기 형성을 위해 진행되는 식전행사의 성격으로 진행된다.
다 리 제	이어 다리에 도착하여 풍물이 선도하는 가락에 맞춰 흥을 돋우고서는 다리제를 진행한다. 간단한 제의식을 통해 경건한 자세로 가택의 안녕과 마을의 번영을 기원한다. 그런 후 제주를 비롯한 각 기관장과 제관들이 다리를 건너는 것으로 돌다리 밟기 행사의 본막을 열게 된다.
다리밟기	이어서 신랑각시, 농부, 두레풍물패, 목도꾼, 섬아낙네, 촌로, 학생, 산모 등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갖춘 계층들이 두서없이 나와 다리를 건너면서 본행사의 내용이 꾸며지게 된다. 이들의 복장은 대개가 근대시기의 시대상을 반영한 의상들이며 인물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상징하는 소품들은 크게 준비되거나 어필되어 있지는 않다. 다리밟기의 진행양상은 본래 대천천 돌다리에 쌓인 애환의 깊이나 신앙적 간절함보다는 흔히 볼 수 있는 이웃의 인물상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 돌다리를 지나갔을 술한 애환의 생활사가 충분히 반영된 형태는 아니지만 주변의 관심을 끌기위한 몇가지 시도들이 장면을 구성한다.
브릿지공연	그런 중간에 경기민요 공연팀이 등장하여 경기민요 메들리를 부르면서 분위기 변화가 꾀해진다. 보령지방이 전국의 민요분포도상 경기소리 권역임을 예시해 주듯 경기소리가 흐드러지게 펼쳐진다. 그 소리꾼들은 의식적으로 습득된 통속민요를 열창한다. 민요가 브릿지공연의 소재로 선택된 점은 돌다리밟기의 시대성을 보강해 주는 것이지만 보령지역의 지역성을 갖추지 못한 정체성 없는 소리들의 나열로 인해 상투적인 분위기를 뛰어넘지는 못한다. 보령에는 농사와 어로에서 파생된 소리들이 적지않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들이 현지인들에 의해 재구성되어 드러나지 못함으로써 민요공연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못한채 통과의례적으로 끝나고 만다.

다 리 굿

다리밟기가 다 끝난 후 다리옆에서는 마지막 순서로 기원굿이 벌어진다. 초청된 경기굿팀의 굿판이 벌어지는데 많은이들이 굿판을 메우고서 자리를 뜨지 않는다. 이러한 대중의 관심과는 별도로 본 행사에서 돌다리밟기와 굿판은 별개의 인상으로 유리된채 진행된다. 다리굿이라도 하는가 싶어 내다보면 크게 다리굿이라고 말할 특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다만 돌다리옆에서 진행되는 굿일 뿐이다. 굿따로 행사따로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통일적 연관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관건이라 하겠다.

이로써 돌다리밟기 행사는 굿판의 정리와 함께 동반하여 끝을 맺는다.



다) 돌다리밟기행사 개선안

1) 개선방향의 핵심

- (1) 역사적 시점을 갖추자**
- (2) 풍속의 사회사를 드러내자**
- (3) 소품을 충분히 활용하자**
- (4) 보령의 민속을 반영하자**
- (5) 구성의 통일성을 유지하자**
- (6) 관객의 체험적 참여를 실현하자**
- (7) 흐름의 역동성과 놀이성을 갖추자**

개선방향의 핵심은 보령지역의 역사적 개관 및 특성, 보령지역민의 풍속의 사회사적 내용 및 민속적 놀이와 그리고 정치경제적 위상속에서 보령을 대표할 만한 것들에 관한 검토속에서 이루어졌다.

2) 개선방향

(1) 역사적 시점을 갖추자

다리밟기에 출연하는 인물들의 역사적 시점이 구분없는 점에 대한 지적이다. 이 점은 쉽게는 의상과 소품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 등장인물들의 시기성을 다루는 방법으로 돌다리밟기의 연원적 시기인 조선전기와 후기, 근대의 전후기, 현대시기 등에 대해 어떻게 얼마만큼 인물들을 설정할 것인가와 그 시기성을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시대마다 의상에 변화가 있고 소품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2) 풍속의 사회사를 드러내자

시대를 드러내는 풍속은 다양하다. 그 풍속의 속내를 적나라하고 또는 해학적으로 또는 규모있게 확인할 수 있다면 흥미로울 것이다.

<보령지역 사회사적 풍속의 例 - 돌다리밟기 명장면 13가지>

- ① 대천해수욕장 부근에 본거지를 두고있던 조선시대 충청도 수군절도영 배속 거대한 규모의 홍주목 악공,악생의 편성악대가 돌다리를 지나가는 광경
- ② 홍주목 목사,수령과 관아행렬이 돌다리를 지나가는 광경
- ③ 규모있는 목도꾼들이 목도소리를 열창하며 지나가는 광경
- ④ 다리를 지날 때 밀고당기는 장례행렬의 장엄하고도 절묘한 통과 광경
- ⑤ 저산8읍,보령,덕산지방 보부상집단의 죽방울놀이와 텃새, 뽕과의례 광경
- ⑥ 조새몽당을 들고 갯벌을 향하는 아낙들의 행렬
- ⑦ 봉기행렬
- ⑧ 촌로들의 지극정성 비는 마음
- ⑨ 한양가는 모시,어염,면화 임금님 진상행렬
- ⑩ 한양에 말타고 과거 보러가는 선비들
- ⑪ 등불써기의 등불행렬
- ⑫ 등바루놀이의 아낙들의 섬노래
- ⑬ 풍년제에 등장하는 허수아비 행렬 등등

시대와 지역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장면을 실감나고 규모있게 연출함으로써 박진감과 사회상을 통해 볼만한 풍경이 재현될 것이다.

(3) 소품을 충분히 활용하자

지극히 간소화된 소품으로 등장시키지 말고 상기한 풍속의 사회사를 각 장면별로 실제적인 구성과 규모를 갖춰 소품을 준비하면 볼거리와 흥미성이 훨씬 배가되면서 돌다리를 통해 본 시대상이 마치 시네마처럼 흘러갈 것이다. 소품은 행사에 대한 정성과 구체성을 나타내는 척도이며 본 행사에 있어 관광진흥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연출안에 따른 소품의 예>

충청도 수군절도영 악공악생 복장과 모형 악기들 또는 군병복장과 무기
홍주목사 의상과 관아의 관직복장 그리고 당대 모형이동수단들
목도꾼들의 실감나는 이동과정과 목도소품 그리고 리듬감 있는 목도소리
장례행렬 모형 상여와 의상 그리고 만장행렬
보부상 집단의 의상과 짐꾸러미 그리고 죽방울놀이 시연과 도구
섬아낙들의 굴개는 도구들
풍어를 비는 오색 대형 붕기와 대나무
말을 탄 진상행렬의 의상과 모형 마차와 이동소품
과거보는 선비들의 의상과 馬과 짐꾸러미들
등불써기의 등불
풍어제에 선보인 허수아비들 등등

(4) 보령의 민속을 반영하자

<반영할 만한 민속소재>

등바루놀이에 등장하는 아낙들의 섬노래와 놀이형태 압축적 표현
등불써기의 등불행렬
풍어제
풍년제에 등장하는 허수아비 행렬
도미부인 영정 등

말그대로 한내 돌다리는 보령의 민속을 잇는 가교역할로 다시 태어날 때 내용의 확대와 더불어 관광자원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5) 구성의 통일성을 유지하자

현재 짜여진 5가지 형식구조가 주는 빈약한 내용, 연출상의 부실, 역동성과 놀이성의 결핍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보령의 사회상과 풍속 그리고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재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사적 소재



민속적 소재



놀이적 소재



굿적 소재



관객 참여적 소재



(6) 관객의 체험적 참여를 실현하자

각 구성되는 장면마다에 관객이 피동적 입장에서 참여형 관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판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관객은 프로그램 흐름에 따라 소품적 참여, 연기적 참여, 놀이적 참여가 언제나 가능하다. 즉, 관객은 소품이동과 소품운용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일정한 역할의 부여를 통해 각 아이টে별로 극적 동작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다. 더불어 장면과 소재의 구성이 놀이화 될 때 더욱 편하게 어울릴 수 있어 보다 흥미진진한 돌다리 밟기가 될 수 있다.

전체 구성 프로그램과 무관하게 관객만이 할 수 있는 돌다리 밟기 행위유형을 개발하는 것도 필수적인 일이다.

(7) 흐름의 역동성과 놀이성을 갖추자.

무대에 올려지는 모든 행위는 극적이고 흥미로와야 한다. 돌다리도 중요한 무대이다. 역동성과 놀이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각 장면마다에 정성과 고증과 연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장면구성의 소재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신앙과 사회풍속사 그리고 놀이를 악가무(樂歌舞)의 요소로 승화시켜 나갈수 있을 때 본 행사의 진정한 관광자원화가 가능할 것이다.

2. 등바루놀이 개선 및 관광이벤트화 전략

가) 등바루 놀이의 문화적 특징

등바루놀이는 음력3월 하순에서부터 4월상순사이의 조금때에 실시하는 장고도 섬처녀들의 놀이이다.

섬에서 4월8일 전후 시기를 등바루의 날로 결정한 요인은 첫째는 연평도 조기잡이를 끝내고 귀향할 무렵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해변의 해당화가 만발하는 무렵이며 셋째는 사리때에 비하여 조금때가 어촌의 일손이 비교적 한가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등바루 일자는 이 무렵 부락사정, 장배(市船)내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보령문화원, 『우리고장의 民俗』, 1997, 69쪽에서 인용).

이 등바루놀이는 2M 높이, 10M 둘레로 된 돌담을 쌓고 남성들이 접근을 막고서 하는 여자들만의 놀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굴밥을 주며 굴캐는 소리, 까그매소리, 줌방울넘기, 꽃뺨기, 굴캐는 노래, 등바루 노래를 부르며 천진난만한 동요와 놀이를 겸비하게 되는데 동심과 협동심을 갖춘 토속적인 놀이의 특징을 지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앞두고 다소 인위적으로 첨가되고 제작된 ‘등바루 노래’와 놀이행동의 흔적을 갖춘 것으로 현지에서 확인된 바 있지만 섬아낙들만의 고유한 놀이양식이라는 점에서 귀중한 놀이유산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나) 놀이의 진행구조

■ 굴부르기 - 동요 - 돌방만들기 - 굴캐기겨루기, 등바루노래 - 굴캐기 여왕뽑기 - 까그매 놀이, 꽃춤, 무등놀이, 동요 - 등불귀로

이 놀이의 진행구조는 돌담을 쌓는 준비과정과 굴캐는 경연과정 그리고 노래와 놀이를 통해 휴식을 즐기는 놀이과정, 마지막으로 귀가과정 등 4가지로 편성되어 있다. 즉, 준비-경연-놀이-귀가의 4가지 편성구조를 지닌 놀이이다.



다) 관광이벤트화 전략

(1) 놀이의 온전한 형태 유지가 관건

이 놀이는 기본적으로 섬아낙들만의 고유한 놀이 형태인 까닭에 그 고유성이 강하여 전승민속의 온전한 형태를 어떻게 잘 유지보존하느냐의 문제가 그 개선책보다도 앞서 더 중요하다. 온전한 전승이 온전한 관광성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위적인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용 연출로 인해 박제화되고 진부한 진행구조를 지속시킬 필요는 없다.

(2) 관광객 참여형으로 부분적인 개선

이 놀이에 등장하는 노래들이 참 아름답고 유희적이다. 선소리꾼의 메기는 소리에 받는소리 만이라도 관객이 참여하여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더불어 다양한 동요놀이에 참여해도 무방하며 그러한 참여를 고려한 행사운영이 필요하다.

까그매, 꽃뺨기놀이, 돌방쌓기 등은 참여가 가능한 부분들이다.

3. 보령 돌문화축제 프로그램 개요(시안)

구 분	프 로 그 램	규 모	장 소	기 타
전 야 제	전야제공연		본행사장	야간
	줄불놀이	line 3	개울/앞산	
	갯도 라이트쇼	갯도 2-3곳	주변 갯도	
개막행사	개막식		본행사장	진입로
	석장승제	석장승 거리조성		
	탄광 광부비 제막식	광부 동상 1기		
	식물화석전 개막식		석탄박물관	
	돌공예 개막식		본행사장	
	기념藝石 조각오픈식	예석1기	본행사장	행사중제작
전시행사	돌무늬 전시회	오석 300여점	석탄박물관	태백협조
	동식물 화석 전시회	화석 1,000여점		
	석조각 공예전	돌조각공예 80여점	본행사장	
	남포버루 전시회	100여점		
	광물(희귀석) 전시회	100여점	석탄박물관	
	예석전시회	5만점	거문예석	
	수석전시회	300점		
	석탑사진 콘테스트	200점	본행사장	
	설치돌미술전	상설1곳	본행사장	전국
	남포오석 비석사진전	상설1곳		
체험행사	갯도체험	인근갯도 상설운용	인근갯도	
	착암기 굴착/광차밀기	상설 1곳	박물관 및 주변시설	
	화석캐기 여행	상설 1곳		
	내 손으로 찍는 연탄	상설 1곳		
	갯도내 탄 푸기	상설 1곳		
	광부복장 입어보기	상설 1곳		
	우리집 돌문패 만들기	상설 2곳	본행사장	
	돌그림그리기	상설 1곳	본행사장	
	부싯돌 불붙이기경연	상설 3곳	본행사장	
민속행사 (돌관련민속)	한내 돌다리 밟기	1일1회 (개천or행사장)	개울특설다리	
	누석탑 쌓기	상설 1곳	진입로	
	돌절구에 돌집어넣기	상설 3곳	본행사장	
	작은돌위에 커풀 올라서기	상설 1곳	본행사장	
	비석치기/사방치기/공기놀이	상설 3곳	본행사장	
	돌돌놀이	1일1회 1곳		
판매행사	석조각 공예품	상설 3곳	본행사장	
	남포버루	상설 3곳		
	돌 문패/명패	상설 2곳		
	보령산 머드제품	상설 1곳		
	뚝배기 돌솥(小)	상설 1곳		
	돌도장 재료	상설 1곳		
특별행사	이름에 돌石자 들어간 사람 경품행사	1일1회		
	석재 납골묘 가설 및 장례식 시연행사	가설1곳,1일1회시연	옆산 언덕	
	돌관련 음식코너	4곳(돌솥밥,돌구이)	천변	
	돌상품 기행코너	웅천,남포,예석,무창포 연계		

4. 이벤트 개발방향

1) 갯도 라이트쇼(Light Show)

장 소	본행사장 주변 인근 산중 갯도 2-3곳
시간배치	야간에 줄불놀이에 발맞춰 산속갯도에 라이트 점화
내 용	<p>야간의 산속갯도 안쪽에 오색의 라이트와 레이저를 설치하여 깊은 산속 어둠속에서 찬란한 빛의 향연 연출한다.</p> <p>갯도 안에서 밖으로 빛이 나가도록 설치.</p>
기획목적	<p>일반적인 불꽃놀이를 지양하고 지리적,지형적 특성에 맞는 불꽃의향연 연출.</p> <p>협소한 행사장 분위기를 넘어선 산속 빛의 쇼를 통해 협소한 계곡의 답답함을 덜어내고 갯도라는 동굴속에서 터져나오는 빛의 파노라마를 통해 웅장한 행사의 서막과 야간분위기를 장식.</p>
이벤트장점	<p>여타 축제와는 다른 동굴속 빛의 향연으로 본 행사의 강렬한 빛의 이미지와 여운 지속</p> <p>폐광의 재활용 및 응용으로 본행사장의 공간감 확대</p>

2) 줄불놀이

장 소	석탄박물관 앞산 정상에서 하천까지 또는 하천 상공
시 간	전야제 공연 끝난 직후
내 용	정상에서 하천까지 줄을 매달아 불꽃을 일으키는 폭죽 하강. 화재위험성 있을 경우 천변에서만 실시
이벤트 장점	본행사장의 협소한 거리감을 확장하고 인근야산과 하천을 행사장화 할 수 있다.
기 획 목 적	민속전래의 불놀이를 응용하여 협소한 행사장의 공간이미지 확대 행사장 주변의 자연지형 이용
참 고 사 례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의 선유줄불놀이 프로그램

3) 석장승제

장 소	석탄박물관 본행사장 주변 진입로
시간배치	개막식 식전행사(제례의식) 및 상설행사(전시)
내 용	보령 전역의 석장승을 모방한 조각들을 준비하여 행사장에 석장승거리를 조성하고 제의를 지낸다.
기획목적	행사장 진입로에 석장승거리를 조성하여 행사장 분위기 구성과 보령지역의 전래적 석조물 이미지를 강화하고, 볼거리와 감상거리를 확대한다.
이벤트장점	돌문화가 전통생활속에서도 빼어나게 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승마스크와 제례의식을 통해 돌이 전해주는 전통생활의 신앙과 풍모를 느끼게 해 줄 수 있다. 또한 행사장 진입로의 미적 구성으로 인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

4) 석탄 광부비 동상제막식

장 소	석탄박물관 정면 입구
시간배치	개막식 본행사
내 용	보령지역의 상징적 산업인 석탄산업의 과거를 되새기는 탄광광부의 작업하는 동상을 세워 교육적 메시지와 지역적 상징성을 전하는 기념비 제막식을 갖는다.
기획목적	과거의 석탄산업을 기리는 상징물 조형
이벤트장점	축제 기간이외도 해수욕관광객에게 보령지역의 산업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보령발전에 기여해온 탄광촌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을, 학생들에게는 한국경제를 일으킨 석탄산업의 존재를 널리 알리는 교육효과를 지닐 것이다. 이 제막식은 개막행사의 주요 이벤트가 될 것이다.

5) 돌무늬 전시회

전시대상	절단한 면적의 아름다운 무늬결을 지닌 오석
전시장소	석탄박물관 실내전시장
내 용	오석이 지닌 아름다움을 새롭게 음미하기 위하여 보석을 다듬는 절단기로 오석을 절단하여 그 때 형성되는 돌무늬를 전시한다
기획목적	돌이 지닌 새로운 이미지를 제공하고 돌이 만들어 지는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무늬결 전시회를 갖는다. 오석은 그 무늬가 빼어나다.
이벤트장점	돌의 형성과 내부형태를 보여주는 교육적효과 돌 특히 오석이 지닌 무늬결의 미적효과 돌문화축제의 아이템 확대 및 판매효과

6) 동식물 화석전시회 및 화석캐기 탐험

장 소	석탄박물관 특별전시실
시간배치	본행사 상설 및 행사후 상설전시 초중학교 집단관람 고려
내 용	석탄박물관이 소장한 식물/나무/곤충들의 화석 300여점 전시회 동물화석 700점 전시 - 태백박물관, 소장자 대여
기획목적	둘이 지닌 기능중 화석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자연사 탐방/ 과거로의 여행이 주는 교육효과 제고. 전국의 식물화석의 대부분을 모아 특별전을 개최하고 이 전시회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
이벤트장점	지질학 분야 전국적 관심유발 가능 식물화석을 다량으로 보존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아 보령 석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식물화석은 그 양과 가치가 크다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아이템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연사 탐방의 흥미와 볼거리, 가족형 교육기회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p>진행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석탄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식물화석319점을 전시하고 타지역에 의뢰해서 대표적인 동물화석을 임대해서 전시한다. 2)대학의 화석전문가 또는 지역내 학교의 지구과학 관련교사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해서 화석에 대한 현장교육을 병행한다. 3)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입수해서 흥미를 유발시킨다. (석탄박물관 영상관 활용) 4)오전/오후 1번씩<화석설명투어>를 실시하여 해설을 통한 만족도를 높인다. 5)지질관련 대학생들을 행사요원으로 활용하여 상시 화석에 대한 설명을 제공
<p>태백정선 화석캐기여행 (참고사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석캐기에는 너와집에서의 식사, 역중에서가장 높은 추천역 탐방이 준비되어 있다. (자연과 사람, 코스피아 어른 43,000, 어린이 29,000) 2. 영국 국립돌센터(National Stone Center)에서 화석캐기여행(fossil hunting)프로그램을 실시.



7) 석조각 공예전

장 소	본 행사장 특별전시구역 전시 및 판매병행 고려
시간배치	본행사 상설
내 용	웅천지역 및 보령의 석재조각품 전시회. 80여호가 되는 각 공장/공예업자마다 한 점씩 작품을 제출하여 전시 및 판매를 진행. 가급적 소품중심으로 전시한다.
기획목적	웅천석재의 지명성과 가능성을 한자리에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제공. 보령지역이 지닌 보령특산물로서의 석조각세계를 조망하고 석조각품의 생활문화로의 확산을 도모. 우수한 석조각 공예품의 전국명산지로서의 지명성 확산의 기회 마련.
이벤트장점	웅천석재 석조공예의 규모있는 전시기획 마련. 돌예술과 문화의 다기한 면모 인식기획. 탐방객들에게 돌축제의 강인한 인상 제공 및 판매기획 부어 - 생산성 향상의 발판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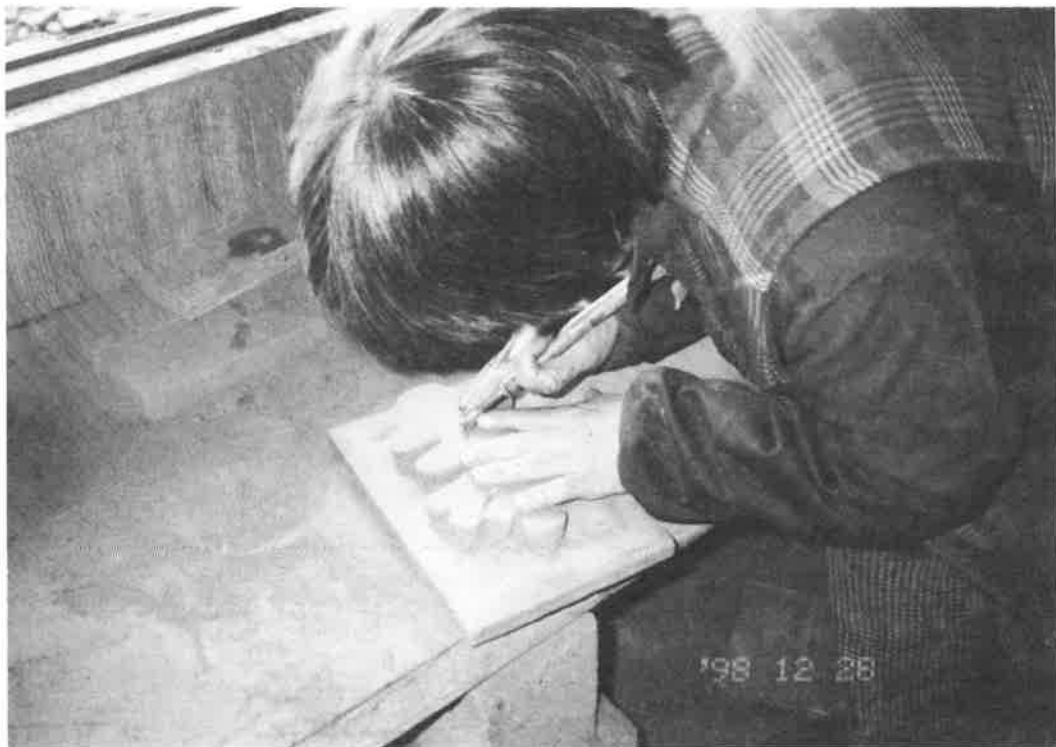


8) 남포벼루 전시회 및 벼루체험

장 소	본행사장 특별전시구역
시간배치	본행사 상설운영
내 용	<p>남포벼루의 장인들을 한자리에 초청 전시하여 그들 작품의 우수성과 조각예술의 진미 제공.</p> <p>벼루제조과정 시연 - 오석의 특성 및 보령지역 장인들의 세계 조명.</p> <p>남포벼루 판매 병행.</p>
기획목적	<p>전국 최고의 벼루 생산지로서의 명성 유지확대.</p> <p>오석조각품의 예술성과 벼루의 기능성이 조화된 남포벼루의 생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확산.</p> <p>남포벼루의 생산성과 판매량 증대</p>
이벤트장점	<p>지질학적으로 석탄층에 연이은 오석층의 존재를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아이템.</p> <p>오석층의 세계와 그 사회적 효용성을 상징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아이템.</p> <p>판매를 병행함으로서 방문객 구매욕구 충족.</p>
남포벼루 체험	<p>(1) 유명인사들의 휘호나 좋은 글귀를 탁본을 만들되 관광객들에게 제공한다.</p> <p>(2) 지역의 서예가가 먹가는 방법이나 좋은 벼루 구 분법, 예법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시연을 보여 주며, 이것을 관광객들이 시연하도록 하여 순위 에 따른 시상품은 서예가가 서화나 서예품을 주도 록 한다.</p>



(남포벼루)



(남포벼루제작과정)

9) 갯도체험

장 소	<p>본행사장 주변 인근 폐갯도</p> <p>석탄박물관 모의갯도</p>
시간배치	<p>매일 방문객 탐사(답사)팀 인솔 운용</p>
내 용	<p>가족별, 직장별, 개인별 방문객 인솔하여 갯도내 체험코스 운용</p> <p>원거리 체험과정의 안정성 제고</p> <p>체험성, 교육성 내용진행 병행</p>
기획목적	<p>이색체험 이벤트 개설 - 관광객 흡입요인 창출.</p> <p>자연과 들과 흙에 대한 도전력 인식의 계기 제공.</p>
이벤트장점	<p>이색체험에 바탕한 가족참가형 체험이벤트로 적합</p> <p>단체 방문객 관리안내 효과적</p>



모의갱도



폐광입구

10)착암기 굴착작업 / 갱도내 탄푸기 / 광차밀기

장 소	석탄박물관 및 채탄기자재 야외 전시장
시간배치	체험코스 상설 운용
내 용	<p>방문객 직접체험 코스(3단계 체험 : 파기-푸기-나르기)</p> <p>(1) 착암기 굴착작업 - 모형갱도와 동굴속에서 방문객이 직접 다루어 보는 코스</p> <p>(2) 갱도내 탄 푸기 - 갱도에 들어가서 탄을 직접 퍼보는 체험</p> <p>(3) 광차밀기 - 보관중인 광차를 타보는 코스 달리는 광차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철로를 평형으로 설치하여 서행 운항한다.</p>
기획목적	<p>채탄이 이루어지는 3단계 작업과정 직접 체험.</p> <p>체험을 통한 만족도 제고 및 탄광세계의 이해</p>
이벤트장점	<p>보는 축제에서 체험하는 축제의 성격 구비</p> <p>방문객이 원하는 코스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하여 전시와 체험 그리고 구매를 연결하도록 할 수 있다.</p> <p>이색체험과 향수를 자극함으로서 축제의 색다른 맛을 더해 줄 것이다.</p>



굴착기 착암작업



갱도내의 광차

11) 광부복장 입어보기와 사진촬영

장 소	본행사장
시간배치	상설 운용
내 용	<p>가족별, 직장별, 개인별 방문객 갯도내 체험코스 운용</p> <p>안전도 고려하여 체험과정 단순화</p> <p>조교 배치 및 교육적 내용진행 병행</p> <p>광부복장 체험아이템 : 안전모, 광부복, 안전화, 안전등과 밧데리, 방진마스크</p>
기획목적	<p>이색체험 이벤트 개설 - 관광객 흡입요인 창출.</p> <p>자연과 돌과 흙에 대한 선경험 전이 체험.</p>
이벤트장점	<p>이색체험에 바탕한 가족참가형 체험이벤트로 적합.</p> <p>관람위주 탈피하여 프로그램 참여도 제고효과 기대.</p>



12) 우리집 돌문패 만들기

장 소	본행사장 특설부스
시간배치	상설 운용
내 용	<p>방문객 개별적으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자기이름을 새겨주는 행사.</p> <p>(1) 미리 문패에 걸맞는 돌을 구비해둔다. (2) 현장에서 5-10분정도에 이름자를 새겨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3) 1-2만원선에서 만족도를 갖춰준다. (4) 오석이외에 무창포 돌을 이용해 본다.</p>
기획목적	<p>가정마다 문패 달아주기</p> <p>주변인물에 대한 선물용 상품개발</p>
이벤트장점	<p>무창포에서 주어진 돌에 이름을 새겨줌으로서 무창포와 축제장으로 연결해주는 연계효과 창출</p> <p>오석의 신비함과 고풍스러움을 만끽하고, 작으나마 사갈 수 있게 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p>

13) 누석탐 쌓기

장 소	본행사장 진입로 양옆
시간배치	방문객 방문시 수시 운용
내 용	<p>행사장 진입로 양옆에 진입하는 방문객 누구나가 자신과 행사의 소원을 비는 돌을 주어 서낭당을 만들어가는 행사</p> <p>해가 거듭될수록 탑의 높이와 탑수량이 증가하여 그 자체가 불거리가 되게함.</p> <p>방문객 그룹당 또는 개인당 돌탑형성하여 기원토록 함. 돌탑 ZONE 조성</p>
기획목적	<p>돌장승거리와 돌조각상들과 어우러지는 관광객의 자발적 탐쌓기 참여 프로그램</p> <p>축제의 연륜과 무게를 느끼게 해주는 염원의 탑조성</p> <p>탑이 형성되면 돌탑주위를 돌며 진행하는 탐돌이행사를 연계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p>

<p>이벤트장점</p>	<p>폐막식때 하이라이트 창출효과</p> <p>돌탑쌓기로 인한 관광객 참여프로그램 만족도 확대</p> <p>민간신앙적 요소 활용 어필할 수 있음.</p> <p>돌탑과 석장승과 석상들로 구성된 회장 분위기의 돌이미지 강화</p> <p>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돌재료로 인해 경비절감효과</p> <p>익년부터 탑돌이 행사 가능 - 돌과 관련된 신앙세계 표출</p> <p>폐막식때 점화 또는 기념탑으로 활용 가능</p>
<p>참고사례</p>	<p><팔용산 탑축제></p> <p>팔용산 서남쪽 먼등골 골짜기에 시민들이 계곡정비와 함께 돌탑을 쌓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크고 작은 630 군의 돌탑군을 형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이 정성어린 돌탑군을 배경으로 이 고장의 크고 작은 기원제를 비롯하여 전통문화행사를 마련 함으로서 팔용산 탑축제는 향토문화의 개발과 전승의 모델로 발전하게 되었다.</p>

14) 한내 돌다리 밟기

장 소	석탄박물관 앞 냇가 가설 돌다리
시간배치	본행사 낮시간대
내 용	<p>보령시내에서 진행되는 돌다리 밟기 민속행사를 돌문화 축제의 일환으로 재현하되 그 상징적 돌다리를 석탄박물관 앞 개천에 가설하여 진행</p> <p>(연출안 별도-III.이벤트 개선 및 관광자원화 항목참조)</p>
기획목적	<p>돌로된 다리에 얹힌 희노애락과 신앙을 다채롭게 표현함으로써 서민속에 내재된 그 신앙상을 드러내 본다.</p> <p>돌의 쓰임새가 얼마나 중요한지와 그 생활문화의 풍속도를 돌다리밟기 행사를 통해 드러낸다.</p>
이벤트장점	<p>불거리 풍성하고 관광객 직접체험 가능</p> <p>다양한 구성연출을 통해 흥미유발 도모가능</p> <p>돌의 사회적 기능을 드러내는 이벤트 기능</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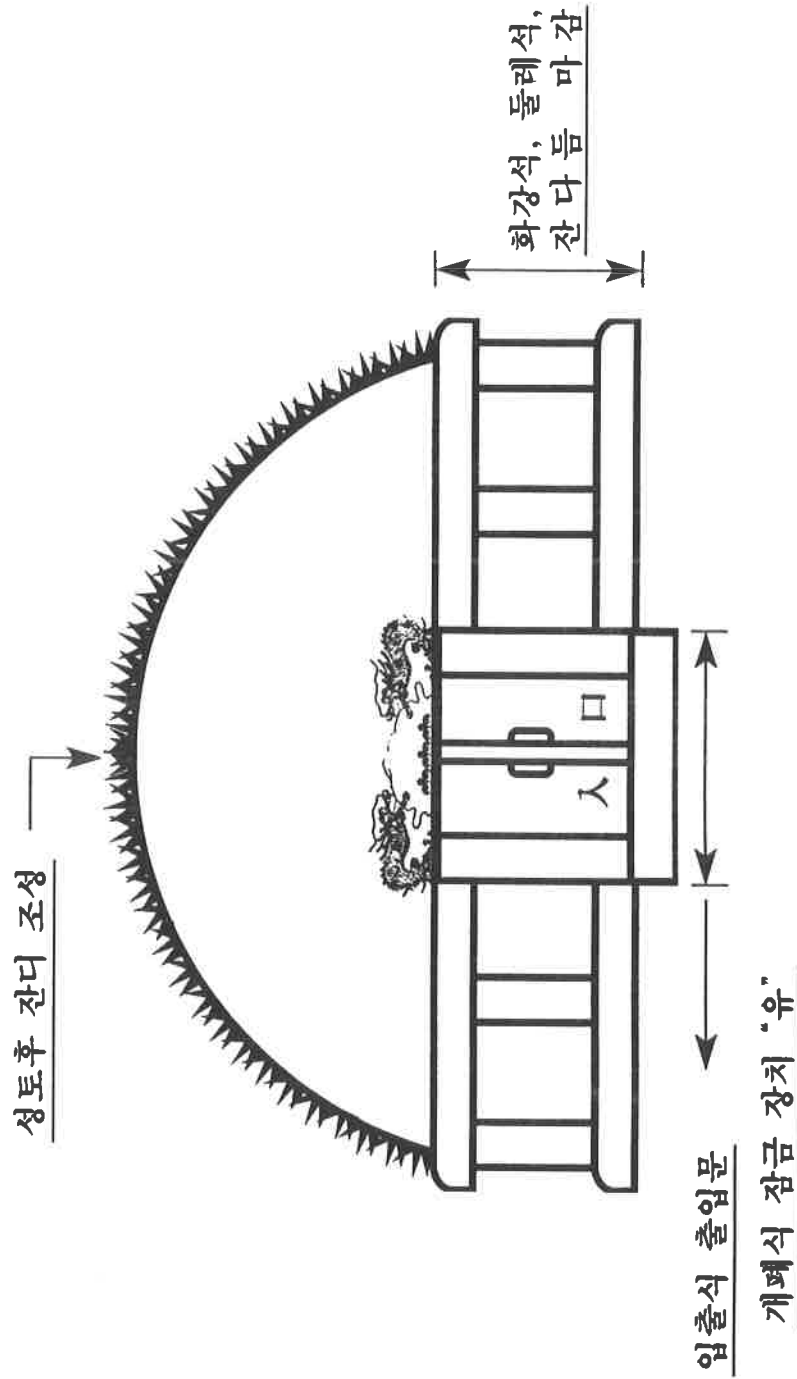
15) 들돌놀이

장 소	본행사장 특별 놀이구역
시간배치	본행사 상설운용
내 용	<p>방문객들의 돌나르기 경연행사</p> <p>조선후기 이래 성행한 들돌놀이는 농사후 육중한 돌을 잘들어 나르는 경연을 통해 힘센 장정을 가리는 행사이다.</p> <p>이 행사를 통해 농사의 고단함과 갈등을 여과하게 되는데 이때 돌이 그들을 엮어가는 바로미터가 된다.</p>
기획목적	<p>돌이 생활소품 또는 놀이감으로 등장하는 민속생활 경연유형을 재현함으로써</p> <p>박진감 있는 방문객 참여프로그램 개발</p> <p>: 돌소재 민속놀이의 한 유형 제안</p>
이벤트장점	<p>방문객 참여형.</p> <p>돌을 통한 민속전래의 생활풍속 체득</p>

16) 석재 납골묘 가설 및 장례식 시연행사

장 소	본행사장 옆산 야산자락
시간배치	1일 1회 시연 및 설명회
내 용	<p>화강암석재를 이용한 가족 및 가계 납골묘 가설</p> <p>납골묘 관련자료 배포</p> <p>장례인식의 전환을 위한 납골묘 안내와 모의 장례행렬 진행</p>
기획목적	<p>장례문화의 인식전환의 계기조성과 이에 따른 석재를 이용한 대안 마련</p> <p>화강암석재 활용방안 모색 일환</p>
이벤트장점	<p>장례인식전환의 계기마련</p> <p>호상놀이를 통한 볼거리 제공</p> <p>웅천석재의 판로 확대개척 효과</p>

차세대 봉분형 납골묘 설계도 시안



정면도

제조설계: 정진석제

17) 예석(藝石)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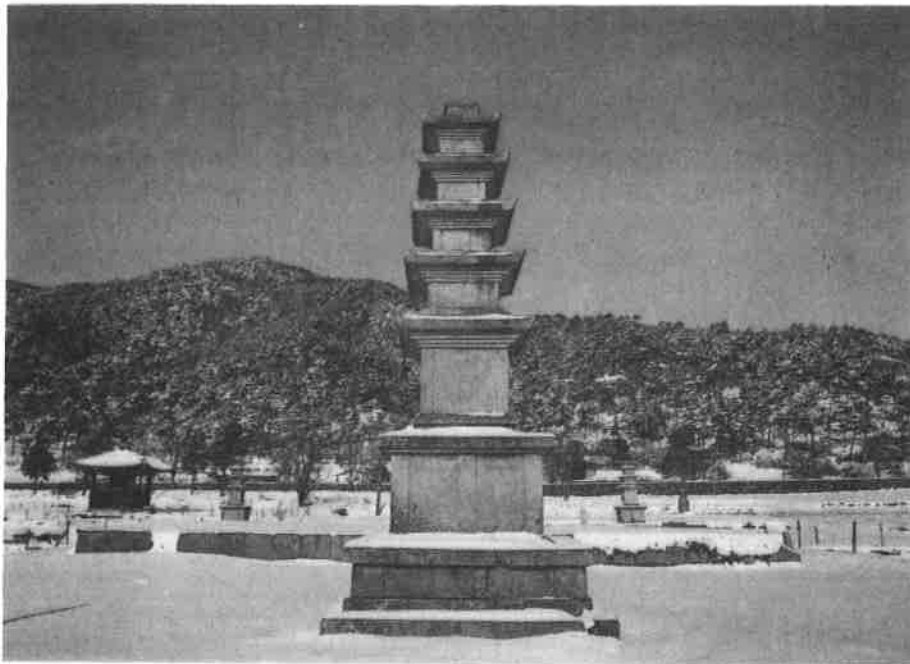
시간배치	본행사 상설전시
장 소	1안) 행사장으로 쓰이는 석탄박물관에서 한다. 2안) 거문예석의 넓은 부지를 이용해서 한다. 거리도 석탄박물관에서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가깝다.
기획목적 및 이벤트 장점	1) 비석등 석공예품의 딱딱함에서 벗어나 예술성이 가미된 작품 등을 전시함으로써 무겁고 투박한 이미지의 주제에 예술성을 가미한다. 2) 보령에 위치한 예석 전문생산업체인 거문예석에서 약 8만여점 의 작품을 소유하고 있다. 3) 사진찍는 행사와 연계하는 장점도 있다. 4) 아마추어/프로 사진촬영대회 유치가능
진행방법	1) 거문예석과 시청의 협조를 얻어 행사장에 예석과 간판석을 전시한다. 2) 예석운반에 관련된 사항은 시청이 기자재를 동원해서 협조 ① 메인행사장인 석탄박물관으로 전시물을 옮겨서 전시하는 방법 (단점:운송비) ② 거문예석(공장)을 행사장으로 활용하여 연계시키는 방법 (장점: 운송비절감/공간확보의 장점) 공장의 예석을 만드는 과정을 이벤트화가 가능

예석전시



18) 전국석탑사진전

장 소	돌문화 전시체험의 장
시간배치	상설
기획의도 및 이벤트 장점	<p>1) 우리민족의 장인정신과 석공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보령지역의 석탑과 전국 각지의 석탑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시한다.</p> <p>2) 여러시대의 석탑사진을 전시함으로써 각시대의 석탑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p> <p>3) 역사유적에 대한 교육효과</p> <p>4) 사진을 행사장의 진입로나 벽면을 활용하면 공간활용상의 장점도 있다.</p>
진행방법	1) 행사전에 미리 작품을 공모해서 시상하고 작품을 전시한다.



19) 남포오석 비석사진전

장 소	석탑사진전과 병행배치
시간배치	상설배치
기획의도 및 이벤트 장점	<p>1) 남포오석으로 만든 비석이 유명인들의 묘지에 사용된 점을 착안 (관광보령참조)</p> <p>2) 남포오석의 우수성을 이벤트를 통해서 강조</p>
진행방법	<p>1)웅천의 석재단지에서 비석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전문인에게 사진촬영을 의뢰한다.</p>



20) 희귀석 사진전

장 소	석탑박물관 전시실
시간배치	상설배치
기획의도 및 이벤트 장점	<p>1) 세계의 희귀한 광물을 전시하는 국제행사로서의 성격</p> <p>2) 세계의 신기한 광물질 소개와 지질교육에 대한 관심고조</p> <p>3) 축제연륜에 따라 핵심적인 국제행사로서의 위상과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잠재성</p>
진행방법	<p>1) 대전의 자원연구소 내의 박물관, 영국의 국립돌센터 그외 중국, 미국 등과의 협조로 다양한 형석(Fluorites), 분석 (Animal coporolites), 대나무탄석(Bamboo charoals), 바 쿠한세키(Bakuhanseki, 중국송나라때 의료목적으로 쓰인 돌) 등을 전시할 수 있고, 희귀석에 담긴 재미있는 이야기를 판넬전시할 수 있다.</p> <p>2) 국내 희귀석 수집가나 국내 각 대학의 지질학과 교수들의 참여유도를 통해 저렴한 이벤트 비용으로 행사구성이 가능하다.</p>

21) 돌캐릭터 퍼레이드

장 소	보령 및 행사장 일대
시간배치	<p>금요일-일요일 각 일자별 3회</p> <p>1회 10:00-11:00</p> <p>2회 14:00-15:00</p> <p>3회 16:00-17:00</p>
운영방안	<p>1) 석조각, 고인돌 등을 캐릭터화하여 퍼레이드팀 구성</p> <p>2) 축제장을 순회하여 방문객들에게 퍼포먼스를 통한 축제분위기 유발, 이미지 홍보효과 극대화</p> <p>3) 축제방문객들과 사진촬영</p>
기획의도	<p>1) 축제장내 축제분위기 유발에 큰 기여.</p> <p>2) 기념촬영 활성화를 통한 방문객 서비스 제공</p> <p>3) 돌의 정적인 분위기를 동적인 분위기로 전환 가능</p>
구 성	<p>빼어로 2명</p> <p>돌도끼 든 원시인(미국만화 Flint stone등을 참조)</p> <p>고인돌, 남포벼루, 석장승, 석장군, 석탑, 캐릭터2-3명)</p>

III. 보령 돌문화축제 홍보전략 및 서비스전략

1. 홍보매체 별 (부분별) 홍보전략

분야	홍보전략
일간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방일간지, 스포츠지 등에 기사 기재. · 문화부, 사회부, 레저부 중심으로 · 기사내용 : 특집기사, 인터뷰, 일반사항, 행사진행방향, 공모행사, 공모 등
잡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지를 적극활용. (교육잡지, 서예, 수석, 지질관련 전문지, 여행전문지, 레일로드(철도청)) · 여성잡지에 돌문화축제의 가족체험이벤트 기사 게재 · 각 기업체 사보 등에 기재 요청.
TV/라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SPOT광고 : 행사 기간 중 개막식 및 전반적 행사소개. · 특집기사. · 취재보도.
인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 제작에 의한 배포. · 1차적으로 학교 및 여행사배포 2차 일반인 배포. · 지역택시, 은행 등에 비치. · 포스터, 팸플렛, 리플렛, 전단, 스티커, 관광안내 책자 등.

<p>PC통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통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천리안, 유니텔, 하이텔, 넷스고, 나우누리) · 인터넷 이용자 증가율 : 연간평균 270% 성장률. · 10~30대 공략에 효과적. · 비용이 가장 저렴, 시간 제한 없이 홍보 가능. · 남성 : 여성의 비율이 9:1로서 남성들의 이용비율이 훨씬 높음.
<p>옥외홍보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치, 홍보탑, 애드벌룬, 플래카드, 현수막, 배너, 거리 앰블렘기 등.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자동 안내서비스 개설 및 보류시 돌문화축제 안내멘트 운영. · 미군부대 USO에 홍보.

2. 서비스전략

문화관광축제는 관광객지향형 축제로 방문객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쇼핑유발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역을 잘 모르는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전략에 신경을 써야 한다.

1) 보령 들문화축제 서비스 전략 4가지 기본방향

1. 석탄박물관의 기존시설과 임시편의시설(안내부스)을 종합한 편의시설 설치
2. 관광객 지향형의 세심한 안내서비스 구축
3. 휴게공간과 화장실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최근의 문화관광축제 추세 반영
4. 다양한 방문객 지향형, 쇼핑유도형 서비스 개발 (미아보호, 현금서비스 식수 또는 겨울철을 고려한 차 서비스)
5. 청소년수련관의 숙박시설을 연계 활용하며 축제관광객을 위한 세심한 숙박서비스 제공

2) 구체적인 편의시설 및 서비스

구분	내용
행사안내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사장 입구가 장소입지 2. 각종 행사팸플렛 배포 서비스 3. 자원안내봉사자 및 홍보도우미 배치 4. 통역안내원 배치와 외국어 행사팸플렛 배포 5. '오늘의 행사 하이라이트' 알려주기 서비스
휴게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관광축제에서 최근 휴게공간에 신경을 쓰는 추세 (휴식공간 제공 서비스) 2. 주차장 주변의 벤취 등을 적극적인 관광객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전환 3. 노인층 방문객을 고려하여 노약자 휴게소를 청소년수련관 실내에 확보
청 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결한 행사장 유지 (행사장 실내외 화장실, 진입로, 전시장, 무대 등 청소) 2. 쓰레기통의 비치 3. 지역내 중/고등학생 사회봉사시스템으로 유도 (강화고인돌축제에서 효과적으로 나타남.)

구분	내용
임시화장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장실이 편의시설배려에 중요한 항목으로 적극 배치가 요망됨. 2. 진도영등제와 같은 문화관광축제에서 많은 불평이 접수되어 행사운영이 잘 되었어도 화장실 때문에 부정적 평가사례가 있음. 3. 둘문화축제에는 석탄박물관과 청소년수련관의 기존 실내화장실 이용의 장점 4. 그외에 육외 이동화장실 남녀 3-4 Set 사전확보
공중전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동용 임시공중전화 차량확보 - 통신회사와 연계 2. 이동통신회사의 협찬유도
노천카페 (유료편의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천카페를 공연무대의 장에 배치하여 차나 음료수를 마시며 무대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유료 휴게/관람 공간을 마련 2. 관람석 뒷편이나 측면에 위치

구분	내용
식수대 및 세척장소	<p>1. 12월의 추운날을 감안 따뜻한 차 서비스 제공</p> <p>2. 남포벼루체험, 광차밀기 등의 체험행사후에 세척장소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이천도자기축제의 내가 만드는 도자기 코너에서 도자기 만든 후 흙묻은 손을 씻을 세척장소가 필요)</p>
임시 약국/진료소	<p>1. 보령시 보건소와 연계 구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후송병원과의 연락체계 유지</p>
현금출납기	<p>1. 관할 농협협조로 임시설치 운영</p> <p>2. 석공예, 예석, 비석 등이 고가의 상품이라 현금서비스를 통한 충동구매유도 및 판매촉진 활성화</p>

폐광을 체험갱도장으로 개발 추진

강원도 정선과 태백 등 탄광지역에 방치된 폐광을 체험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다.

22일 강원도에 따르면 정선군은 관광객이 갭도에 직접 들어가 채굴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거 금광이었던 동면 화암동굴 인근의 1천2백여m 폐갱도를 관광지로 본격 개발중이다.

정선군은 이달초부터 시작된 체험갱도 개발을 위해 총 1백39억원을 투자전시설과 탐방시설 등을 갖춘 뒤 내년말 완공, 인근의 화암동굴과 함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금광체험 갭도는 상부 5백30m와 하부 4백40m를 포함, 두 갭도를 서로 연결 하는 78m의 수직갭도 등 모두 3개 동굴로 이뤄진다.

상부갭도에는 금굴착 및 노다지 발견을 비롯, 금을 직접 채굴하는 작업 모습을 시대별로 재연해 관광객들에게 금광 채굴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줄 계획이다.

또 하부갭도는 타임터널, 황금의 성, 도깨비나라 마이더스왕등 30여종의 황금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을 조성,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태백시도 소도동 석탄박물관 주변의 과거 함태탄광 자리였던 석탄갭도를 갭도체험장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태백시는 제2차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민자유치가 이달말 공고되면 갭도체험장을 비롯해 세계민속촌 등이 들어서는 태백체험공원 사업을 신청, 총 1백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내년말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갭도체험장 역시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뒤 관광객이 직접 갭도에 레일을 타고 들어가 채탄 및 운반 과정 등 탄광에서의 작업 전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진다.

태백시 관계자는 “폐광 갭도를 체험관광지로 활용하면 폐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물론 색다른 관광명소로도 인기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98/04/22

[태백] 지하갱 붕괴사고 재연 석탄박물관 인기

[우르릉 팡, 탄광이 붕괴된다. 신속 대피하라]

강원 태백시 소도동 태백석탄박물관. 원형대로 복원한 막장 채광모습에 낯을 놓았던 관람객들은 갑자기 터져나오는 갱 무너지는 소리와 대피하라는 화급한 목소리에 혼비백산하기 일쑤다.

태백시가 152억원을 들여 지난해 5월 개관한 석탄박물관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하1,000m지하갱의 실제상황이 붕락사고를 포함해 100% 재현됐다. 관람객이 1m안에 들어오면 센서에 의해 각종 시뮬레이션(모조품)이 자동으로 작동한다. 갱내에서 작업반장과 광부가 채굴방법에 대해 토의하고 광부의 곡괭이 소리가 들린다.

공룡알, 신생대의 곤충·물고기, 중생대 식물, 영화 [쥐라기공원]의 소재인 모기와 암모나이트, 고생대 수룡의 화석 등 희귀품에서 첨단 굴삭장비까지 6,637점의 전시품이 매월 교체 전시되고 있다.

지질관, 석탄의 생성 발견관, 석탄채굴이용관, 광산안전관, 광산정책관, 탄광생활관, 태백지역관, 체험광도관 등 구성이 다양하며 TV모니터로 영상자료도 볼 수 있어 지루하지 않다.

관람객은 지난해 27만명, 올들어 10만명을 넘었다. 주로 수학여행단 친목회 계모임 관광단 등이며 여름이면 피서객들이 줄을 선다.

관람료는 어른 770원, 어린이 및 청소년 군인이 330원, 노인 및 영.유아는 무료다. 문의 (0395)53_4672

한국일보 98/04/22

태백석탄박물관

[산업자원부] 폐광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정부는 침체돼 있는 강원과 경북, 전남, 충청도내 폐광지역 업체에 대해 임금의 일부분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각종 활성화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22일 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폐광지역을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조정지원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증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연간 임금의 절반(대기업은 3분의 1)을 1회에 걸쳐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아울러 이들 업체에는 시설공사비의 30%를 선급금으로 우선 대출해 주고 1개 업체에 대한 융자 한도도 종전 2백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춰 지역간 균등지원과 다수의 중소기업에 융자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폐광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현재의 태백등 8개외에 전남 화순, 충남 보령, 경북 문경 영순 등 10개 농공단지를 추가하고 기능인력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이 심의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우대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 폐광지역의 열악한 입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간 연계도로개설, 시가지 정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오는 2005년까지 모두 3천2백억원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석탄박물관 북한산 화석 전시키로

북한에서 출토된 화석이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강원도 태백시 태백석탄박물관은 최근 무역회사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입수한 북한산 화석 10점을 오는 10월부터 특별전시실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최고 8억년전 원생대에서 2억3천만년전 중생대에 이르는 북한산 화석은 해조류와 속새류 각 2점, 조개류 3점, 돌이풀과 콩팥 고사리류 각 1점, 소사나무 1점이며 화석 산지의 대부분은 한국 최초의 탄광인 사동탄광이

있는 평양시 승호구역 부근이다.

1900년 프랑스에 의해 개발된 평양시 사동탄광은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군함 연료용 무연탄 생산을 위해 지난 45년 해방때까지 개발을 계속해 왔으며 현재도 가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백석탄박물관은 이번에 입수한 북한산 화석이 학술적 가치는 다소 떨어지지만 한국 최초 탄광 개발지에서 나왔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태백석탄박물관 조장현관장은 "앞으로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한국 최초 산탄지인 평양시 승호구역에서 발굴되는 다양한 화석을 확보, 관람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돌가루로 외화벌어 IMF호자』

『돌가루가 IMF시대에 달러를 끌어들이는 호자상품』 돌가루를 원료로 만든 식품첨가물

【바이오네틱】이 미국시장에 대량으로 수출되는 판로를 개척해 재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태백 철암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주)광물나라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에 성공한 식품첨가물 바이오네틱 제품이 최근 미국식품안전국(FDA)에서 농축미네랄음료로 승인이 되면서 재미교포 사업가와 해외 판매권과 홍보권을 체결하는 계약을 맺었다.

바이오네틱의 독점판매를 위해 설립한 미국 현지법인 뉴셀(NUCELL)은 1차로 판촉용으로 쓸 제품 3만상자 5만불어치를 이달말까지 보내 달라는 신용장을 보내왔으며 올 연말까지 적어도 1천만불 이상의 바이오네틱을 수입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장담했다.

광물나라 박훈철사장은 "바이오네틱이 성인병과 불치병에 탁월하다는 소문이 미국인들에게 전해지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있는 재미교포 사업가와 해외 독점판매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고 말했다.

박사장은 "올해안에 최소한 1천만불 이상의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 이라며 "돌가루로 만든 바이오네틱이 이 처럼 IMF시대에 귀중한 외화벌이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강원아침신문

개 최 일 : 1998.7.30 ~ 8.4

개 요 : 강화는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큰 섬이며 서울과는 약1시간의 가까운 위치에 있어 사시사철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구석기 시대의 유물인 쌍날찍개, 청동기시대 족장의 무덤인 지석묘, 단군신화의 유적인 참성단과 전등사, 보문사, 정수사 등 불교문화의 대표적인 고찰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또한 강화도 남단에는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1,500 여만평 규모의 넓은 갯벌과 마니산, 고려산 등 반나절 코스의 등반로, 여름 휴양지의 대명사인 함허동천 계곡의 야영장과 서해고도의 오염되지 않은 조개골, 대빈창, 뒷장술해수욕장등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제1회 고인돌축제와 환상의 콤비를 이루어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며 다양한 레퍼토리를 경비한 수준 높은 관광객 참여형 축제는 이곳을 찾는 이에게 최대의 아름다움과 감미로움을 줄 것이다.

주요행사 : ○ 공식이벤트 : 개막식, 식전행사, 축하행사
○ 고인돌축제 : 원시기원제, 원시분장코너, 체험 원시생활, 미니 움집 만들기 컨테스트, 맘모스를 잡아라, 원시인과 사진촬영
○ 특별이벤트 : 고인돌 역사교실, 고인돌 영화제, 강화전통문화 향연, 단군탄생설화 연극
○ 관광이벤트 : 강화역사기행, 갯벌탐험, 갯벌 장사씨름대회, 강화특산품전 등(1인 35,000원 숙박, 교통편 제공)

교 통 : ○ 시외버스
안양 → 강화 : 05:20-20:30/20분 간격
신촌 → 강화 : 05:30-21:30/10분 간격
안산 → 강화 : 6:30-18:40 1시간 간격
인천 → 강화(부평경유) : 05:30-21:30/25분간격
인천 → 강화(양곡경유) : 05:40-21:00/20분간격
부천 → 강화 : 06:20-19:00/30분간격
강화 → 외포리 : 06:00-21:00/20분간격 (고인돌광장)
강화 → 흥왕리 : 06:00-21:00/60분간격 (동막해수욕장)
※ 강화버스터미널 (032)934-3447

숙 박 : 코레스코가족호텔(032-937-5071)
남산유스호스텔(032-934-7777)
강화유스호스텔(032-933-8891)
기타 여관 다수

관광명소 : 역사관(갑곶돈대), 함허동천, 동막해수욕장, 인산, 토산품센터, 덕진진, 광성보, 초지진, 마니산, 고려궁지, 강화산성, 오음약수터, 강화지석묘, 보문사, 전등사 등

행사문의 : 강화군청 관광진흥과 (032)933-8011

0000 작성기준일 : '98. 6월

0000 정보제공자 : 강화군청 관광진흥과 이수정

연구 책임자

정 강 환(鄭 鋼 煥)

1. 약 력

미국 미네소타 대학원 (U. of Minnesota) 레저 관광학 박사(Ph. D.)

현. 배재대학교 관광경영대학 관광학부 부교수

국무총리실 세계화 추진위원회 문화관광분과 연구위원

'98 APEC (아태경제협력체) 관광실무세미나 '관광과 문화축제' 한국대표 기조발표자

문화관광부 7대문화관광권 관광축제분야 자문위원

현. 문화관광부 관광국 문화관광축제 심사위원

현. 문화관광부 지역문화예술과 문화의 거리 자문위원

현. 한국 관광공사 축제조직자 연수과정 강사

현. 문화진흥원, 국립도서관 주체 공무원 연수과정 이벤트담당 강사

현. 지방행정연수원 고급 및 신입관리자과정 이벤트 강사

현. 국제저널 "Festival Management & Event Tourism" 아시아지역 담당 편집장

현. 이벤트 가이드 자문위원 및 前 월간 '이벤트 뉴스' 고문

현. <진도영동제> <금산인삼제><광주 김치축제> 기획 및 평가 자문위원

전국 15개축제 자문, 평가, 개선방안 연구

▣ 이벤트(축제) 관련 주요저서

<이벤트 관광전략 : 축제와 지역활성화> (일신사 1996)

<칠갑문화제의 개선방향과 전략> (청양문화원 1997)

<한국의 지역축제> (문화관광부 1996) (공저)

<세계화시대의 관광산업> (이벤트 관광전략과 발전) (일신사 1996)

▣ 이벤트(축제)관련 주요 논문 및 연구

<Tourism Expectation on the Seoul Olympics : A Korea Perspective>

미국 관광학회(TTRA) 최우수 석사 연구논문상 수상 (1988)

<엑스포 전후비교를 통한 대전의 지역관광영향분석> (1997)

<이천도자기축제 평가 및 소평성향에 관한 분석> (1997-1998)

<백제문화제 관광상품화를 위한 방문객 조사> (1996)

<한국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관광전략> (1995)

<만세보령문화제 축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7)

<진도영동제 축제방문객 조사> (1996-1997)

<금산인삼제 평가 및 방문객 조사> (1996-1997)

<천안삼거리문화제 개선방안> (1996)

<보령머드축제 평가 및 관광효과에 관한 분석> (1998)

<여주도자기축제 관광축제로서의 평가> (1997)

<백제문화원의 고증과 개선방안> (1997)

<한국 전통주와 맥축제 평가 및 관광효과 분석> (1998) 외 다수

연락처 : 042-520-5644

